



[해설] 이견희 별세 한달 삼성 불확실성 털고 주가 고공행진 03



Economy

코스피	↑	2602.59 (+49.09)	코스닥	↑	873.29 (+3.11)
금리 (미국 3년)	↓	0.955 (-0.008)	환율 (원/달러)	↓	1110.40 (-3.90) (23일)



대한항공 항공기.

'한지붕 두' 국적항공 구조개편 '신의 한수'

항공업계 빅딜 X

30여 년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내 항공업계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나서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이 이미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수급 불균형으로 경영난을 겪어왔기에 이번 양사의 통폐합에 따른 시장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그에 따른 여파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上) 항공시장 지각변동

수급 불균형 인한 경영난 속 코로나 겹쳐 최악 보릿고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뎀 FSC 1곳, LCC 5곳으로 재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가 결국 구조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실사단 구성을 마무리했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약 두 달간 아시아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등의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류 실사를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대면 인터뷰나 현장 실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기훈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일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 통폐합이 아닌 시간대 조정 등의 중복 노선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항공기 조정, 목적지 추가를 통한 인력 유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향후 인수 방향에 대해 밝혔다.

대한항공과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시아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

아나의 신주 1조 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을 위해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분율 63.9%로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같은 대형항공사(FSC)의 통폐합은 그간 국내 항공시장에 제기돼왔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양대 국적사가 하나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양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사도 함께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운항하던 항공사만 아홉 군데에 달하던 국내 항공업계는 FSC 1곳, LCC 5곳으로 구조조정 될 전망이다.

실제 국내 항공업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이전부터 이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당초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던 내국인의 출국 수요 성장률은 2018년 7월 이후 지난해 2월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뜻하는 아웃바운드 시장에 공급이 쏠려있던 국적사들의 특성상 이 같은 수요 하락에 따른 타격을 이 수박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내국인의 출국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9월 기준 7만 6798명을 기록하며 -9.3%로 역성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3월 플라 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며 논란을 빚었다. 항공시장 내 수요가 줄고 있고 기존 항공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려 새로운 면허 발급으로 공급을 늘렸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구조개편 작업은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뿐 아니라 양사 산하 LCC와 지상 조업사 등 관련 자회사들의 가능 재편까지도 포함돼 있어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전체적인 통합과 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증시 새 역사... 코스피 최고치 경신

외국인 매수세로 2600선 넘어 2년 10개월만에 증가기준 최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2년 10개월만에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보다 49.09포인트(1.92%) 상승한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18년 1월 29일 증가 기준 2598.19다. 장중 기준으로는 같은 날 2607.10이다. 이날 2602.59 마감으로 코스피는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2600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988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8741억원, 기관은 592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 중이다. 특히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13거래일 동안 6조 415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 740억원, 기관은 161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4.17%), 삼성전자우(3.95%), SK하이닉스(3.82%), LG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553.50)보다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화학(3.18%)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국내 대표 반도체주로 꼽히는 삼성전자(4.17%)와 SK하이닉스(3.82%)는 전일 대비 각각 2700원, 3700원 상승한 6만 7400원, 10만 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10만원선에 올라섰다.

앞서 반도체는 11월 수출입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28%)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전기전자(3.69%), 증권(3.34%), 운수장비

(2.6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533개, 하락 종목은 305개, 보합 종목은 67개로 집계됐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부흥에 대한 우려보다는 백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달러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을 비롯한 유동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긍정적인 수급여건이 단기간에 부정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정은경 "코로나 백신, 연내 3000만명분 확보"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역 크고 작은 집단감염 지속 전국적 대규모 유행 우려 상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92세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단계다. 정부는 연내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일(330명)보다 줄어 들면서 92세만에 300명대 아래로 하락했다. 지역별 발생 역시 255명으로 전일보다 47명 줄어 들었다. 다만, 서울 109명, 경기 74명 등 수도권에서만 206명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 발생하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흘째 200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난 21일 재발병동을 방문한 입

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자는 81명으로, 서초구 사우나 확진자도 56명으로 늘어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대 확진자 비율이 40주 차 총 확진자 10.6%에서 47주차에는 17.8%로 급증했다"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연내 코로나19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여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백신 3000만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연말특수 기대에 버텨보려 했는데”... 희망 잃은 자영업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8월 매출 5분의 1로 줄어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밤잠설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향후 3차·4차 소비지원 불가피
지역화폐형 재난소득 지급해야”

“가게에 나오면 손님 대신 종일 벽만
보고 있다가 눈물이 나네요.”

23일 서울시 구로구 한 옷가게 사장
의 낮두리다. 장씨는 “주로 사무실이 모
여있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과 퇴근 시
간 등을 이용해 가게를 찾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손
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에 들어서며 매출이 5분의 1로 줄
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어 “다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하
향되고 이제 좀 버텨보려 했는데 300명
대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떨려 매일 밤잠을 설쳤다”고 털
어놨다.

장씨의 말처럼 22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씨의 옷가게 뿐만 아니다. 음식점
과 술집 등은 더욱 걱정이다. 특히 연말
특수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뜰까 긴 가게문을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
는 한상진씨는 “저번 달 150만원을 벌었
는데, 월세로 120만원을 냈다. 30만원
도 공과금 내고 하면 남는 건 거의 없
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2.5단계 때도 12
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감축했다.

이어 “술집과 음식점 같은 곳은 연말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장마나 여름·가을
영업 적자를 매꿔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데 정말 막막한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에서 음
식점을 운영하는 김종욱씨는 “8월 2.5
단계 때는 하루 매출 5만원이 채 안 되
던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 2주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
었다. 그는 “1학기 때는 코로나19 초반
이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란 희망도 있었지만 1년이 다 돼가며
희망은 잃은 지 오래”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추가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트위
터를 통해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
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
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
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강화군에서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지원한 것처럼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 달라”
고 호소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한진그룹.

“한진칼, 산은에 유상증자 추진 ‘적법’ 사모펀드 KCGI, 가치분신청 무책임”

한진그룹, 사모펀드 KCGI에 반박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추
진을 앞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
I의 ‘신주발행 금지 가치분 신청’에 대
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3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이 산
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
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다”라며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산은에 대한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
하고 적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대
해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
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
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다”라며 “이번 가치분 신청은 지극
히 무책임한 행태다.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지원 반대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
난 18일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관
련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구조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신주발행 금
지 가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진그
룹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
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 이러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것이 이
같은 가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오는 25일 서울중
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한진칼의 제3
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
행금지 가치분 관련 심문에 대해서도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가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무
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
문학적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몇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
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
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
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
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
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
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불러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
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 집배원 고충 던다

과기정통부-우분, 7kg 이상에 적용
중량물 하중 10% 이상 줄이는 효과

7kg 이상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
잡이가 달려 상자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진다. 이에 따라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의
노동의 고충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
부는 23일부터 구멍손잡이가 있는 우체
국소포상자를 판매한다. 소포상자 수요
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는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
다. 정부 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
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
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 및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포상자
는 총 6종으로, 구멍손잡이는 7kg 이상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소포상자
에 만들었다. 재질도 원지배합을 강화



2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들이
구멍손잡이가 없는 소포상자와 구멍손잡이가 있는 소포상자를 비교해 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해 고중량 적재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

소포우편물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
균 10번 정도 작업이 이뤄진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가 어렵고 장갑을 끼고 옮
기면 미끄러지기도 해 작업이 어려웠지
만, 구멍손잡이로 고충을 덜어 줄 전망
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마
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
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체국에서

판매한 7kg 이상 물품에 사용한 소포상
자는 370만개이다.

이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판매하
는 서울중앙우체국에는 이날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신동근위원장, 이수진 총괄간사, 이용
빈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
고위원, 구분기 생활경제 연구소장, 안
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박종석 우정사
업본부장,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이 방
문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이랜드, 랜섬웨어 대응 TFT 구성 등 총력

50여개 지점 기본영업 정상적 진행

이랜드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해의 소
재로 추정되는 유포자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
고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이랜드 본사
서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으며, 현재
이랜드는 TFT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랜섬웨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및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2일 오
전부터 뉴코아, NC 등 23개 유통 지점
영업을 중단하고, 서버 전체를 셧다운
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조치를 단행
했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50여 개 이
랜드리테일 산하 대부분의 지점은 일
부 기능을 제외한 기본 영업을 정상적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 조치를 완

료한 상태이며, 랜섬웨어 사태 이전으
로 원상복구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
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고 있
으나 고객 관련 정보는 별도로 구분된
서버에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
다”라고 말하며, “사태 해결 및 피해 정
상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안
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건희 별세 한달... 삼성계열사 불확실성 털고 주가 고공행진

JY 체제 기대감에 고배당 매력까지... 사법리스크는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개 계열사 주가 평균 13.8% ↑
 삼성물산 16.3%, 삼성생명 16.4%
 삼성바이오로직스 25.6% 치솟아
 '10조 상속세'에 배당성향 상향 등
 증권가, 삼성주가 상승 이유 꼽아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이견희 회장 별세 후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배당 확대 기대감과 함께 경영권 안정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회장 별세 후 20일까지 거래일 20일간 7개 주요 계열사 주가가 평균 13.8% 올랐다.

삼성물산(16.3%)이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7.4%)와 삼성생명(16.4%) 등 주요 계열사도 큰 상승세를 경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6%나 치솟으며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를 여실히 반영했다. 2차전지 계열사인 삼성SDI도 21.3% 상승률로 2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호텔신라(5.7%)와 삼성SDS(4%)도 함께 주가를 높이며 삼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시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계열사 주가 상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들고있는 스마트폰이 '익스펜더블폰'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4공장을 준공하며 바이오 분야에서도 '초격차'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유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배당 증가 가능성을 꼽는다. 10조원을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지분률이 17.33%인 삼성물산과 고 이견희 회장 지분이 20.76%인 삼성생명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물산이 43.44% 지분을 가진 회사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삼성 주가 상승이 비단 상속과 관련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전망과 함께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당장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반대체 다음 미래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했던 일도 다시 언급됐다. 최근 4공장 준공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최대 바이오 생산 업체 자리를 확고히 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치료제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삼성SDI가 2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삼성SDI는 삼성전자가 19.58%로 최대주에 올라있으며, 국민연금공단(10.02%)과 블랙록 펀드(5.01%)가 대주주로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 2차전지 산업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

가를 크게 높였다는 얘기가.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가, '공정경제 3법'과 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가, 보험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지분률 급감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삼성 계열사 주가 급등 이유는 상속세에 대한 최대주주 일가의 배당과 담보대출을 통한 납부 가능성"이라며 "공정경제 3법이 올해 내로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기대가 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2개월 '반짝상승'

산업부, 10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백화점·대형마트 전년비 2.1% ↑
 온라인 17.1% ↑ 평균 8.4% 증가
 이달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에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빨간불' 우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11월엔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2.1%, 온라인 매출은 17.1% 증가해 전체 매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출도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되기 전인 1월 +4.1%를 기록한 2-8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플러스(+1.0%)로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워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출 상승은 10월말부터 진행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다양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과 시즈할인 행사기획 영향으로 이

전보다 더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군별로 가전문화(26.4%), 유명 브랜드(23.8%) 매출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나머지 생활/가정(14.1%), 아동/스포츠(10.0%) 등 대부분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전체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건수는 9.8% 감소했지만, 구매단가는 오히려 17.0% 증가했다. 백화점의 구매건수 감소(-17.3%)가 가장 컸으나, 구매단가 증가폭 역시 백화점이 26.0%로 최고였다.

업체별 매출비중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SSM 등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의 매출 비중은 45.5%로 커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백화점(+4.2%), 편의점(+2.9%), 대형마트(+2.3%) 매출은 상승했으나 SSM(준대규모 점포, -12.4%)만 크게 하락했다.

11월 중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다시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달 24일 이후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지난 8월 재확산 영향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유통업체 매출 감소는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17.6%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4월 -5.5%, 5월 -6.1%, 6월 -3.0%, 7월 -2.1%로 완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엔 -2.4%로 꺾짝 반등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공인인증센터 | 한국지식경제부

똑똑하게 알아보고 신속하게 대응... 진화하는 AI 보안

영상분석·얼굴인식 기술 등 활용
건물침입 감지·화재 등 재난 대응
추적 기능·사건 전후 영상 전송도

보안전문 기업, 공장, 전력회사 등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건물에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파악해 조기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AI 보안관제 시장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알체라·스핀어웹·링크제니스·T3Q 등 AI 기업들은 영상분석이나 사람·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보안관제 솔루션을 잇따라 내놓고, 보안 관련 대기업, 공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해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반의 보안관제 기술이 도입되는 이유는 출동요원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출동하는 오류를 줄여주고, 침입 예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건물 보안관제에 AI 도입



AI 영상인식 전문기업 알체라가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건물 보안이나 화재 감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이상상황 감지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다. /알체라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건물 침입을 탐지하거나 화재 등 재난을 감지해 출동 명령을 내리는 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KT텔레캅에 AI 침입예측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플랫폼은 현장에 자석, 열선 등 감지기를 설치하면 신호 발생시 AI 플랫폼에서 침입여부를 판단해 출

동요원이 빠르게 출동하도록 해준다.

특히 침입 발생시 카메라에 신호 발생 시간 전3초, 후7초 영상을 요청해 플랫폼으로 전송해준다. 이 뿐 아니라 출입 통제용 리더기로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 출입문을 개방해 외부인 침입을 차단하며, 화재 등 위험을 대비해 실내환경 감시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센서에서 공기 질 상태를 수신하고, 변동폭 등 기준에 따라 AI가 비상위험을 판단해준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지기에서 신호가 왔을 때 AI 기술로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해야 할지, 오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해 오출동은 물론 요경보도 최소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알체라는 건물에 누군가 침입이나 방화를 하거나 화재가 나는 등 이상상황을 감지하면 이를 빠르게 알려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AI 이상상황감지 솔루션을 한국전력의 남서울사업소 변전소에 공급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바꾸거나 별도로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CCTV를 AI 서비스에 연결하기만 하면 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핀어웹은 '달리닝 실시간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건물의 침입 탐지나 화재 감지 용도로 제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핀어웹 관계자는 "영상분석 솔루션을 활용하면 CCTV 등과 연결해 건물 주변에서 연기 불꽃만 나도 이를 초기 감지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다"며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로 사람

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거나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하면 이를 잡아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링크제니스는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VLAD'를 보안 및 감시·모니터링 용도로 기업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공장이나 카지노 감시, 범죄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이미지 파일 인식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인식 영역을 설정하고 업종별 데이터를 적용한 답러닝 기술로 높은 인식률과 정확도를 제공한다.

T3Q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AIaaS' 플랫폼과 영상인식 분야의 서비스팩을 결합해 AI 기반으로 건물 보안을 관제하는 솔루션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의 솔루션은 CCTV 카메라 영상이나 촬영된 이미지에서 일상적인 행동, 일반적인 사물과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나 목표물을 발견하면 이를 빠르게 경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의자, 실종자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與野 뉴딜펀드 줄다리기... 6000억 예산심사 장기화 예고

KB국민은행
스마트 기업대출 서비스

예결위 소위 예산심사

금융위 "정책자금 통해 마중물 역할"
野 "기존 사업과 겹쳐 대폭 삭감"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처가 불확실한 뉴딜펀드 특성상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측은 뉴딜펀드 투자처가 기존 사업과도 겹치는 데다 조성방안이나 운용계획 없이 예산계획을 통과 시켜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원안 유지, 야당은 대폭감액을 주장하면서 예산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여야 공방의 중점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예산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등의 원들이 23일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6000억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출자한 6000억원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에서 8000억원을 출자받아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

성하고 사업에 투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뉴딜펀드와 투자처가 겹치는 사업에는 이 예산을 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한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는 현재 5조원 이상 남아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뉴딜 분야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확실한 영역인 만큼 원활한 펀드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출자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 미리 후순위 채권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면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전에는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을 두고 각각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어 예결위 의결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구글 횡포, 법안만이 희망” 거북이 대응에 콘텐츠 업계 분통

“법안 시행 늦어지면 규제 불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콘텐츠 업체로부터 수수료 30%를 걷어가는데 법안 시행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 문제로 인해 국내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없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이 올해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인앱 결제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추정

되며, 이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 감소 효과나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 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도 대응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위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구글을 신고한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정박 정중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 제출과 함



구글 플레이

께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이들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은 사라졌으며 지속가능한 공생이 어려워졌다. 종속과 악순환만 남았다"며 공정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의 기업여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KB스마트 기업대출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는 모든 기업고객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업여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신신청과 한도 및 금리조회, 서류제출, 거래약정 및 진행상황 확인 등 기업여신 고객의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고객과 은행의 끊임 없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연결 URL 안내' 서비스를 신설해 영업점 기업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업뱅크 가입이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기업여신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의 'KB스마트기업대출' 플랫폼을 신설해 모바일기기 사용이 많은 개인사업자 기업고객을 위한 비대면 거래 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비대면 전용 기업여신상품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완결성을 개선했다. 최대 1억원 한도의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KB디지털 소호(SOHO) 맞춤형대출'의 경우 신청과 심사를 스크래핑 정보와 외부 정보 기반으로 전면 자동화해 대출 한도, 금리 산출, 대출실행에 이르기까지 약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아웃바운드 영업 지원을 위한 기업여신 시스템도 전면 개편됐다. 태블릿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 시 여신 접수, 본부 협의, 서류접수 및 대출약정 등 기업고객과 상담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계모임 위장·할부 유도 등 고도화된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노인·중장년층 피해신고 급증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6% ↑
금융상품 투자 빙자 업체 늘어

원금보장에 평생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중장년층을 노리고 강남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 현황〉 /금융감독원

구분	가상통화 관련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사업	제조·판매사업	합계	
2019년	개수(개)	92	47	2	45	186
	비중(%)	49.5	25.3	1.1	24.2	100.0
2020년	개수(개)	20	29	4	24	77
	비중(%)	26.0	37.7	5.2	31.2	100.0
비중 증감 (%p)		△23.5	12.4	4.1	7.0	-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전년 49.5%보다 낮아졌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

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이나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

실제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

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B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

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에는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 잠적했다”며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新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비금융사업 진출

‘새마을금고 비전 2025’ 선포
3부문 12대 전략, 세부 실행 과제
도시-농촌간 연계 상생경영 도모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선포했다.

새마을금고는 23일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MG ▲혁신하는 디지털 MG ▲지역사회와 행복한 MG 3부문에서 12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도약의 MG’를 위해 새마을금고 신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

비금융사업에 진출한다. 또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간 연계사업을 통한 상생경영을 도모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MG를 위해선 모바일 전자화환 등 디지털 페이먼트를 강화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금융환경을

구축한다. 태블릿 브랜지를 통한 회원 편의 서비스와 회원 상담을 위한 챗봇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행복한 MG를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메세나 사업과 MG역사관 건립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또 새마을금고의 해외 설립을 확대해 금융한류 선도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전국 2000만 회원이며,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국민 모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PB특화점에 토지보상상담센터

우리은행은 PB특화점포인 TCE(Two Chairs Exclusive)강남센터, 대치·청담·가산·잠실 TCP(Two Chairs Premium)센터에 토지보상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보상상담센터는 다음달부터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서 시작하는 토지보상 협의양도에 맞춰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 절세 관련 세무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에 대한 금융투자 설계 및 부동산 매입 등 재투자자를 위한 자문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TCE강남센터와 TCP잠실센터에는 투자물건 검색 및 실거래가, 임대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열람 시스템이 구축되어 고객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억원 이상 토지보상금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절세 목적으로 채권 보상을 선택하는 고객을 위해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연계를 통해 채권할인 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대표 PB특화점에서 토지보상 고객을 위한 절세 및 부동산, 금융 투자 맞춤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맞춤형 전문 컨설팅이 고객의 자산증대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NH농협銀, 고객 맞춤 인터넷뱅킹 탈바꿈

거래시간 단축, 카드서비스 제공
외국인·고령층 디지털 금융 지원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23일 고객제안과 애플마켓 리뷰 등 고객의 견을 수렴해 NH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뱅킹의 계좌조회 화면에서는 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은행의 계좌도 목록과 잔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체거래는 한 단계에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도록 단순화해 거래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고객맞춤 서비스를 위해 앱에 로그인하면 예적금 만기, 내가 받은 우대혜택 등 개인화된 금융정보를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며, 농협카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에서 카드 승인내역, 이용대금명세 조회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해졌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과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을 위해 9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bankin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글로벌모드’는 첫 화면에 고객이 지정한 3개 통화의 매입·매도환율을 보여주고, 해외송금과 환전 등 주사용 기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했다.

또 고령층을 위해 고객이 ‘큰글모드’ 이용을 설정하면 스마트뱅킹 초기화면부터 조화·이체 등 주요 기능들을 큰글씨와 단순화된 항목으로 구성된 전용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뱅킹과 별개로 모바일웹으로 제공하는 ‘모바일웹뱅킹’은 로그인할 때 필수였던 별도 앱을 통한 인증절차를 제거하고,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상품가입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하나은행이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BIDV지분 투자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이지(Hana EZ)’에서 제공된다.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해외 송금 필수 조건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도 은행 방문 없이 ‘Hana EZ’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고 송금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동(VND)통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 운영 중이나, 수취 계좌가 없어도 베트남 BIDV 영업점에서 현지통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² 브릿지(Bridge) : 인천’(신한스퀘어브릿지) 1기 멤버십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신한금융, K유니콘·스타트업 육성 ‘첫삽’

‘S² 브릿지:인천’ 1기 멤버십 선발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² 브릿지(Bridge) : 인천’(신한스퀘어브릿지) 1기 멤버십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한 트리플(Triple)-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 크로스 컨트리 플랜(Korea Cross Country Plan)’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 중이며, 대표 브랜드인 ‘S² 브릿지’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 보육, 투자,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현대차, 이네오스와 글로벌 수소생태계 조기구현 ‘한뜻’

통합 수소 밸류체인 구축 도모
‘그레나디어’에 현대차 연료전지
유럽 내 수소경제 확산에 협력

현대자동차가 수소 생태계를 한층 더 확대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영국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과 업무 협약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배관을 비롯해 수소전기차 개발과 연료전지시스템 활용 등 통합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및 사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MOU 행사에는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사장과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 전무, 피터 윌리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사장 (왼쪽)과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 모습. /현대자동차

엄스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더 헤일만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등 양사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이네오스는 석유화학과 특수화학, 석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 화학기업이다. 현재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수소사회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시너지를 발휘할 협력 분야를 모색해왔으며 이번엔 손을 잡게됐다.

두 기업은 이번 협약으로 이네오스 오토모티브가 개발 중인 SUV ‘그레나디어’에 현대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

하게 된다.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미 넥쏘와 엑시언트, 일렉시티 등에 적용돼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 내 수소경제 확산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회사 핵심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해 즉각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네오스는 자회사 이노빈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과 공급 및 저장, 현대차는 연료전지시스템 공급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으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포부다. 특히 이번 협력을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수소사회로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대하며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연료전지시스템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

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은 “이네오스와 같은 전통적 화학기업이 그린수소 생산, 수소전기차 개발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 같은 이네오스의 노력에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더해져 최상의 시너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 윌리엄스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협약은 현대차와 이네오스 양사 모두에게 수소경제 가속화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양사가 보유한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미세먼지 많으니 공청기 켜드릴게요”

LG 씽큐로 만드는 ‘스마트 라이프’

환경 정보로 고객 맞춤 정보 제공
제품 작동상태 분석해 사용가이드
이상 감지시 출장서비스 예약 안내

LG 씽큐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씽큐앱에 케어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 서비스는 제품 사용 이력과 미세먼지 등 환경 정보로 고객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을 분석해 공기정정기를 켜주거나 겨울철 건조기로 이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메뉴는 ▲스마트라이프 ▲가전리포트 ▲케어솔루션 ▲캠페인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각각 맞춤형 정보와 사용 패턴 분석, 케어솔루션 관리 이력과 공익적 효과 소개 등 역할을 한다.

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LG 씽큐앱. /LG전자

작동상태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사용 가이드를 알려주는 LG 씽큐 앱의 ‘최적 사용 가이드’ 기능도 강화됐다. 세탁기 세제를 정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세제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냉장고 내부 온도가 이상이 감지되면 고객이 출장 서비스를 간편하게 예

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이다.

아울러 ▲제품 제어와 관리 ▲챗봇을 통한 서비스 상담 및 예약 ▲부품이나 소모품 구입 등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수명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기능도 있다.

/김재용 기자

어느 위치에서도 선명... ‘LG 시네빔 4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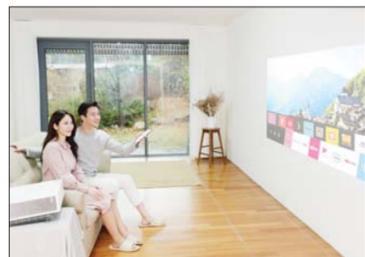
화면 크기 최대 300인치

시네빔 레이저 4K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시네빔 4K 레이저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네빔 4K 레이저 신제품은 프로젝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해도 원하는 모양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리플 화면 조정’ 기능으로 ▲렌즈 방향 상·하·좌·우 조정 ▲최대 1.6배 화면 확대 ▲화면 테두리 12개 지점에서 화면을 늘리고 줄이는 기능 등을 탑재했다.

해상도는 4K(3,840x2,160) UHD에 20만 대 1명암비를 지원한다. 2700안시 루멘 밝기에 디지털영화협회 표준색 영역 DCI-P3를 97% 충족해 선명한 색상을 구현했다. 화면 크기는 40인치에서 최대 300인치다. HDR10을 프레임별로 최적화하는 다이나믹 톤 맵핑 기능으로 입체감과 선명성도 높였다.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 HDMI 2.1 포트와 애플 에어플레이 2 등 화면



LG전자 시네빔 레이저 4K /LG전자

공유와 함께 와이사(WiSA),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무선 연결 기능도 지원한다.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OS로 유튜브, 왓챠, 웨이브 등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다.

LG전자는 연내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디자인 가구 브랜드 두달의 프로젝트 전용 테이블, 왓챠 6개월 이용권 등을 무상 증정한다. 선착순 구매 고객 30명에게는 기본 구매 혜택에 더해 갤러리 디자인 LG 사운드 바도 추가 증정한다. 신제품의 출하가는 379만 원이다.

/김재용 기자

“시스템반도체, 디지털 대전환 핵심분야”

박영선 장관 “사업화 등 적극 지원”
암 반도체 설계자산 활용기업 간담회

국내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 중 하나인 영국의 ARM(암)으로부터 반도체 설계 지원을 통해 성과를 서서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린트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CPU)용 시스템반도체를, 메타씨엔아이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각각 개발하면서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강남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파두에서 ‘암(ARM) 반도체 설계자산 활용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며 “기업 발굴부터 제품 설계, 시장 진출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민간, 학계가 연결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정책자금 확대, 인력양성 등 앞으로도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RM은 지난 4월 중기부, 서울대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 10개사에 설계 패키지 지원, 교육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파두도 ARM으로부터 지원받은 곳 중 하나다. 파두 외에도 모빌린트, 퓨리오사에이아이, 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서울 파두에서 파두 남이현 공동대표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타씨엔아이, 답엑스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외에 코아시아(디자인 하우스), 수요기업인 LG디스플레이와 현대오트론, 그리고 서울대·카이스트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여 스타트업들은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며 중기부에 자금지원 확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해운선사-화주간 상생협력 촉진

CJ대한통운이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 기업으로 대상으로 선정하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선화주’란 해운선사와 이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화주기업인 국제물류기업 또는 수출입기업을 뜻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국적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CJ대한통운은 인증평가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을 수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15개 국적선사 모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힘써왔다.

회사 측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선사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노선별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는?
 절세, 투자, 노후연금수령까지 3가지 혜택과 다양한 상품운용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상품입니다

1 퇴직연금 적립금 업계 1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2019

1 생명보험사 자산 1위
전자공시, 2020

1 국가고객만족도 NCSI 16년 연속 1위
생명보험 부문, 한국생산성본부, 2019

유리지갑 김 차장의 '믿는 구석'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삼성생명 IRP

매년 세액공제로 절세 가능금액 최대 115만 5천원 (소득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율 16.5% / 최대세액공제금액 115만 5천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소득공제율 13.2% / 최대세액공제금액 92만 4천원

IRP 개설이벤트

삼성생명 모바일 어플, 홈페이지(m.samsunglife.com)를 통해 20.11~12월 신규 가입 후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 고객님께 신세계 이마트 2만원 상품권 증정

IRP가입 이벤트 바로가기



삼성생명 FC의 퇴직연금 컨설팅

세액공제 IRP와 퇴직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삼성생명 FC나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담당 컨설턴트 문의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보유 FC 전국 6,200명 (20년 10월 기준)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1588-3115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운용관리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이벤트는 삼성생명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1588-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direct.samsunglife.com)에서 운영하는 이벤트와 같은 내용이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178호 (2020-11-10)



카톡 챗봇 ‘디지털서비스전문 계약제도’ 심의 통과

카카오엔터, 공공 서비스 시장 진출

별도 앱 필요없이 카톡에 챗봇 연동
연말정산·세금납부 등 이용 기대
백상엽 대표 “국민소통 적극 지원”



카카오톡으로 연말정산, 세금 납부, 병무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0일 자사의 서비스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이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공공 IT 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공공 기관에서 카카오톡과 챗봇 등을 활용해 국민들과 더 원활하고 빠른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조달청이 지난 10월 5일 시행한 제도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절차를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입점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공 기관은 이 전용몰에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어 한층 빠른 계약과 도입이 가능하다.

카카오 i 커넥트 톡 챗봇의 강점은 이용자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력과 동시에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의성이다. 고객의 질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기관 내부에 챗봇 서버를 설치, 카카오톡의 AI 엔진을 연동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어 도입 편의성도 높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사항 등을 FAQ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민원 접수부터 상담, 결제·납부 등 과정을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알림 수준을 넘어 훨씬 더 편리하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요금 납부 및 납세, 민원 신청과 안내 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알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는 “카카오 i 커넥트 톡 챗봇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첫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최초의 융합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진에어가 가정간편식 ‘지니키친 더리얼’을 출시했다.

진에어 “집에서 기내식 맛보세요”

‘지니키친 더리얼’ 출시

진에어가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기내식을 컨셉으로 한 냉장 HMR(가정간편식) 상품 ‘지니키친 더리얼’을 출시한다.

진에어는 23일 ‘지니키친 더리얼’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고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집에서도 기내식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메인 요리는 물론 식전빵부터 디저트까지 국제선 기내식과 동일하게 정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내식 박스를 본 뜬 패키지와 조리 방법이 담긴 탑승권, 커틀리 등을 그대로 포함해 재미를 더했다. 뚜껑을 덮은 채로 3~4분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거나 7~8분가량 냄비에서 중탕하면 바로 취식 가능하다.

메뉴는 메인 요리에 따라 ▲비프 굴라쉬 파스타 ▲캐슈넛 치킨과 취나물

밥 ▲크림파스타 총 3종으로 출시되며, 추후 비프·연어 스테이크 등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매는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진에어 홈페이지 내 ‘지니스토어’에서 할 수 있다. 가격은 1만원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니키친 더리얼은 항공기내서비스 전문 기업 이노플라이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상품이다. 기내식과 HMR 제조 공정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이노플라이는 해당 상품의 메인 요리를 냉동 HMR로 생산해 오프라인 채널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진에어는 “해외 여행을 기다리는 고객분들께 함께 했던 여행의 설렘과 추억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고 맛있게 기내식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 16개 산학연 참여 ‘클라우드 원팀’ 결성

서울대, ETRI, 케이뱅크 등 참여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 협력

KT는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에서 산학연 16개 기업 및 기관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원팀(Cloud One Team)’을 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과대,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분원,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다. 산업계는 KT를 비롯해 케이뱅크은행, 나무기술, 소만사,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솔트룩스, 티론, 제노솔루션, 새하컴즈, 아롬정보기술, 티맥스에이앤씨가 합

을 모은다.

이날 행사에는 KT AI/DX융합사업 부문장 전홍범 부사장, KT Cloud/DX 사업단장 윤동식 전무, ETRI 이길행 호남권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박세웅 정보화본부장, 카이스트 문수복 학술문화원장, 포항공과대 흥원기 교육혁신센터장, 케이뱅크은행 김도완 ICT본부장, 나무기술 권윤범 영업본부장, 소만사 김대환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클라우드 원팀은 산학연이 힘을 모아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성, 안정성을 갖춘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토종 클라우드 산업의 뿌리인 인재 양성도 함께 한다.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인력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풍부한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클라우드 원팀 사무국은 KT에 설치되며, ECO상생 지원단과 산업, 솔루션, R&D 3개 혁신 분과, 1개 지원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력과 운용·컨설팅 역량으로 클라우드 원팀 참여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말 한마디면 손쉽게 기부... SKT, ‘AI 기브유’ 첫선

AI 스피커에 기부 프로세스 탑재

SK텔레콤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최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지난 3월부터 공동 개발해 온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신개념 기부 프로그램 ‘AI 기브유(GiveU)’를 처음 선보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AI 기브유’는 AI 스피커 ‘누구(NUGU)’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가 누구 호출어인 ‘아리아’를 부르거나 ‘기브유에서 유니세프로 기부



AI 스피커 ‘누구(NUGU)’. /SK텔레콤

해줘”라고 말하면 “3000원 기부할까요?”라는 답변과 함께 기부 안내 URL을 문자로 보내준다. 5G 시대 기술로 AI 스피커와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기

부가 가능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모금 활동 및 기부 행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세스인 ‘AI 기브유’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 확대가 기대된다.

‘AI 기브유’를 통해 한 번에 3000원 기부가 가능하며, 통신사 관계없이 AI 스피커 ‘누구’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모아진 기금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식수위생, 교육 등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SKC&C-구글, 기업 디지털 혁신 지원

분석 플랫폼에 클라우드 성능 결합
데이터·AI 분석 솔루션 과정 혁신



구글 클라우드 로고

구글 클라우드 SK(주) C&C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큐인사이트 플러스’를 통해 국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아큐인사이트 플러스는 SK(주) C&C가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아큐인사이트 플러스는 데이터 수집, 처리, 모델 개발, 배포 등 데이터 분석 전 영역을 지능화 및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현업 실무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아큐인사이트 플러스에 금융, 제조, 유통,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위한 분석 환경의 유연성과 고도화된 분석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는 분석 플랫폼에 클라우드의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을 결합하며 데이터 및 AI 분석 솔루션 구현 전 과정을 혁신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는 아큐인사이트 플러스의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다양한 산업별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했다.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과 클라우드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관리형 환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생산성 및 리소스의 효율성이 향상되

고 작업의 자동화와 오픈소스 유연성이 강화돼 산업별 특화된 요구사항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SK(주) C&C 김명대 디지털테크 센터장은 “아큐인사이트 플러스는 금융, 유통,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현업 실무자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실현한 검증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며 “구글 클라우드는 아큐인사이트 플러스에 뛰어난 확장성 뿐만 아니라 기술과 성능의 발전을 가져다준 최적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고 매끄럽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최기영 사장은 “격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최상의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는 바로 확장성과 첨단 AI 기술을 모두 갖춘 클라우드”라며 “국내 다양한 산업의 고객은 구글 클라우드로 혁신한 아큐인사이트 플러스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설계, 비즈니스 혁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공모주, 개인 몫 확대’ 독 든 성배 될 수도... 증권가 우려

정부, IPO 공모주 제도 변경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기관보다 정보 접근성 떨어져
개인 손실 확대 부작용 우려도

개인투자자배정 물량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공모주 제도변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SK바이오팜부터 시작된 ‘공모주 열풍’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되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영끌’ 요인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식었을 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 공모주 물량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PO 시장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 청약자에 배정되는 공모 물량은 20%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조합원에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던 지난달 5일 한 개인투자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자 몫이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개인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복수 주권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히려 간접투자 장려해야”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개인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한 개선안이 오히려 투자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IPO 시장에서 만

큰 간접투자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관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가격 결정 능력도 없어서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증권발행시장은 성공적인 물량 소화를 위해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 증권사와 기관 간의 계약 시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 불균형이 심한 만큼 개인은 직접 투자와 공모주펀드 투자 등 간접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모주 열풍 당시 나타났던 양극화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일반투자자 경쟁률은 24.7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청약 미달 가능성도, 인수증권회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진다.

김중곤 NH투자증권 ECM(주식발행시장)본부장은 “개인이 청약,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배정을 많이 받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올해 IPO시장이 핫 마켓으로 형성됐

다고 개인 물량을 확대하면 고스란히 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같은 인기 상장주가 시장 기대치를 높여 놓았지만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매력 없는 종목이란 인식이 커질 것”이라며 “개인 물량을 10% 안팎 늘려 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 금융당국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주가 초과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해 제도를 바꿨다가 개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투기적 성격이 짙어진 현재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만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종목의 공모주 산정 논란도 그렇고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신규 상장종목의 주가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심리로 자금이 몰렸는데 공모주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 ‘팝’ 구독자 11만명 돌파

자산관리용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
초보부터 고액자산가들 니즈 부응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 팝(Samsung POP)’ 구독자 수가 23일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저금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증시에 유입된 이른바 언택트 투자자들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것과 함께 투자정보도 기존 텍스트보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증권사 유튜브 정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런 개인투자자를 위해 디지털상담팀·FT팀 등 전담 상담조직을 마련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종목 및 산업·시황 등에 대해 동영상리포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 팝’ 구독자 수가 23일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

트와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투자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또 단순 주식 정보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세무·부동산컨설팅 등 초보투자자들부터 고액자산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용 동영상 콘텐츠도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

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의 시너지를 통해 삼성증권은 작년 말 5000명 수준이던 구독자 수를 11개월만에 20배까지 증가시키며 구독자 11만명을 달성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Advertorial Corner

안산시화호 일대 첨단 복합도시로 재탄생

대학교 캠퍼스, 국가어항 등 조성

안산 시화호 일대가 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화호 일대를 월곡 국가어항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오이도 지방어항, 시화MTV 개발 등 ‘K-골든코스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K-골든코스트는 월곡에서부터 시화 MTV까지 15km가량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은 시화호 일대 핵심 거점을 연계해 첨단산업, 의료, 레저관광, 문화시설 등을

집약한 해안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먼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월곡항에 300여억원을 들여 부족한 어항 용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준설을 통해 선적 입항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광 어항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학교도 이원화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현재 교육협력동,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시흥캠퍼스내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는 등 의료시



안산 반달섬 조감도.

설까지 마련한다.

시화호 북쪽에서는 복합도시개발사업인 시화MTV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화MTV 사업은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유통 등의 기능을 확립하고 시화호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이용한 관광·휴양·주거 등의 기능이 조화된 21세기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혈액암 등 정밀진단 혁신기업 도약”

IPO 간담회

엔젠바이오

6개 제품 유럽 의뢰기기 승인
서울대병원 등 16곳에 공급
美 진출 위해 CLIA 인수 추진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가 23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엔젠바이오에는 K-T와 젠큐릭스의 합작법인으로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 기반 유방암·난소암 정밀진단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는 등 NGS 기반의 유전자 진단 분야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NGS 기술은 유전체를 조각내어 수많은 조각으로 만든 후 각 조각의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PCR(유전자 증폭) 기술과 다르게 대용량으로 생산한 염기서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엔젠바이오는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정밀진단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관련 제품, 암 조직을 검사하는 고형암 관련 제품, 백혈병 등의 혈액암 관련 제품을 상용화했다. 정밀진단제품 중 6개 제품이 유럽 해외진단 의뢰기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16곳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하여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또 엔젠바이오는 상용화된 정밀진단 제품을 활용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23일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IR 큐티스

동반진단 제품을 개발 및 임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에서 19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내 CLIA 랩을 인수할 계획이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이사는 “미국은 FDA 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주정부로부터 CLIA 랩에서 검사하는 항목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환자 대상 검사가 가능하다”며 “한국 본사에서 검사에 사용할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의 CLIA 랩에서 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정밀진단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엔젠바이오의 상장주권사는 삼성증권으로 총 공모주식은 244만4000주다. 공모가 밴드는 1만500원~1만4000원이며, 공모금액은 257억원~342억원 규모다. 오는 24일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후, 12월 1~2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은 12월 중순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강희석 ‘선택과 집중’ 통했다… 이마트, 3분기 턴어라운드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

이마트, 3분기 깜짝반등 성공
매출 16.7%, 영업이익 30% ↑

강희석 사장, 매장 리뉴얼 통해
신선식품 강화로 매출 5% 성장
온라인몰 매출도 50% 이상 ↑



나 지난 2017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유통업 침체 영향으로 매출 19조628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전례없던 전염병인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유통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다운사이징에 나섰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은 폐점 대신 매장 리뉴얼을 선택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점포를 정리해 수가 줄어든 반면, 이마트는 전체 점포의 30% 가량을 리뉴얼했으며, 신촌점을 새로 열어 점포 수가 141개로 증가했다.

새롭게 바뀐 매장은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을 강화했으며 비식품부문의 공간의 일부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집객 효과를 극대화했다. 리뉴얼한 이마트 점포는 평균 매출 성장률은 4~5% 수준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 /이마트

으로 파악된다.

이마트의 지난해 식품 온라인 매출 규모는 1조1600억원, 시장점유율 6.8%로 1위다. 신선식품 온라인 매출만 보면 매출 규모는 5230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은 14.8%에 달한다. 올해 한국 식품 온라인 시장 규모는 2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의 시장점유율

은 7.9%(약 2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을 싸게(대량 구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전용 물류센터), 당일 배송까지 가능한 유통 업체는 한국에서 이마트가 독보적이다.

온라인몰인 SSG닷컴 통해 온라인 소비 수요 확대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용인과 김포에 잇따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충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월부터 SSG닷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강 사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강 사장은 취임 직후 전문점 효율화 작업에 들어갔다. 빼에로쇼핑, PK피코크 등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전문점 사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신성장동력을 키운 것이다. 이러한 체질 개선은 수익성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 참고형 할인마트 트레이더스의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3.2% 신장율을 기록했다.

전문점의 영업이익자는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억원이 줄었다. 전문점의 핵심사업인 노브랜드는 올해 흑자를 기록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지속 중이다. SSG닷컴은 적자 규모가 31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04억원이 개선됐다. 3분기 누적 순매출액은 955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4% 급증했다. 총거래액 기준으로는 2조82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할인점 본업에 충실한 영업,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에 따라 안전한 쇼핑공간을 만들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 체크를 강화했으며 환기와 소독작업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광나루의 잠룡’ 광장극동아파트 호가 급등

재건축 1차 관문 조건부 통과
기대감에 최대 8억 가까이 올라

이달 초 재건축 1차 관문을 통과한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집값이 치솟고 있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진구 최대’로 불리는 1344가구(1차 448가구, 2차 896가구) 규모의 단지로 광진구 내 유일한 재건축 아파트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극동 1차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검사 통과 후 지난 19일 전용면적 126㎡가 2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6월 17억4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전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품귀현상을 반영하듯 물건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2차는 전용면적 126㎡가 21억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 역시 6월 15억5000만원에 팔린 후 5억원 넘게 호가가 올랐다.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15억4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가 2억원



서울 광진구 광장 극동아파트에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연우 기자

가 가까이 오른 1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전세는 전용 75㎡가 6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호가가 많이 오른 상태지만 매수세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광장극동은 지난 4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으며 조건부 통과를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에서도 같

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공공기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올 하반기 체감 구직난 5년來 ‘최악’

사람인, 구직자 2187명 설문
10명 중 8명 “구직난 심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채용이 줄어들면서, 올 하반기 구직자들이 느낀 구직난 수준이 5년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18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체감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 85.9%가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67.1%) 보다는 무려 18.8%p가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는 단연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가 63.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줄어서(53.6%) ▲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

(36.8%) ▲기업별로 채용하는 인원수가 줄어서(32.9%)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23.2%) ▲서류 탈락 횟수가 늘어서(18.4%) 등의 순이었다.

심화된 구직난이 구직활동에 끼친 영향은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51.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전전(32.8%)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32.6%) ▲물지마 지원(29.7%) ▲인턴 등 실무 경험 쌓기 매진(11%) ▲취업 사교육에 투자(8.7%)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6.4%) 등을 들었다.

이들 중 대다수인 92.9%는 계속되는 구직난 때문에 취업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또, 전체 구직자의 97.1%는 취업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85%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겪고 있었다.

/이현진 기자 ihj@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올해만 1억달러 기술료 수입

4분기 실적 상당수 반영 기대
올 영업익 1000억 달성 전망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로 올해 1억 달러의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게 됐다. 한화로 111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분은 올해 인식하면서 한해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기대가 모인다.

유한양행이 23일 안센에 기술 수출한 3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표적 항암제 레이저티닙의 개발 마일스톤을 달성하여, 6500만달러(약 723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스톤은 안센과 유한양행의 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레이저티닙과 안센의 아미반타맙의 병용요법 임상3상인 마리포사 시험의 투약 개시에 대한 것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4월 3500만달러를 수령한데 이어, 다시 6500만달러를 수령하며 올해만 1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게 됐다. 계약금 5000만달러를 두배 웃도는 규모다.

잇따른 기술료 수취로 유한양행의 한해 실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분기 안센으로부터 수령 받은 마일스톤이 378억원이 인식되면서 441억원의 기술료가 반영됐다. 3분기

는 기술수출 수익이 169억원 반영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수취한 마일스톤 역시 4분기 실적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에 수취한 마일스톤의 절반만 반영되더라도 유한양행 올해 영업이익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의 10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4분기 실적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男女 임금격차 여전, 男 1500만원 더 벌어

남녀간 평균 연봉이 150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가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남녀 노동자 평균임금은 각각 4873만원, 3373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력별, 연령별, 근속년수별 남녀간 임금차이 역시 뚜렷했다.

먼저 같은 학력조건임에도 ‘대졸이상 남성’의 평균 임금은 6034만원인 것에 비해 ‘대졸이상 여성’은 4158만원이었다. 전문대졸의 경우 남녀 평균임금은 각각 4350만원, 3153만원이다. 고졸 이하 평균임금은 남자가 3702만원, 여

자가 271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졸이상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1876만원에 달하며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및 고졸 이하의 경우 각 1197만원, 985만원씩 차이났다.

연령대별 남녀간 임금격차도 상당했다. ‘25~29세’ 근로자의 경우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114만원으로 남성이 조금 높다. 이어 ▲30~34세(351만원) ▲35~39세(842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더니 ‘40~44세’에는 1631만원 차이로 계속 2배씩 점프했다.

이후 ▲‘45~49세’(2538만원) ▲50~54세(2915만원) 차이를 보이며 절정에 달한다. ▲55~59세(2471만원) ▲60세 이상(1276만원)으로 다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현진 기자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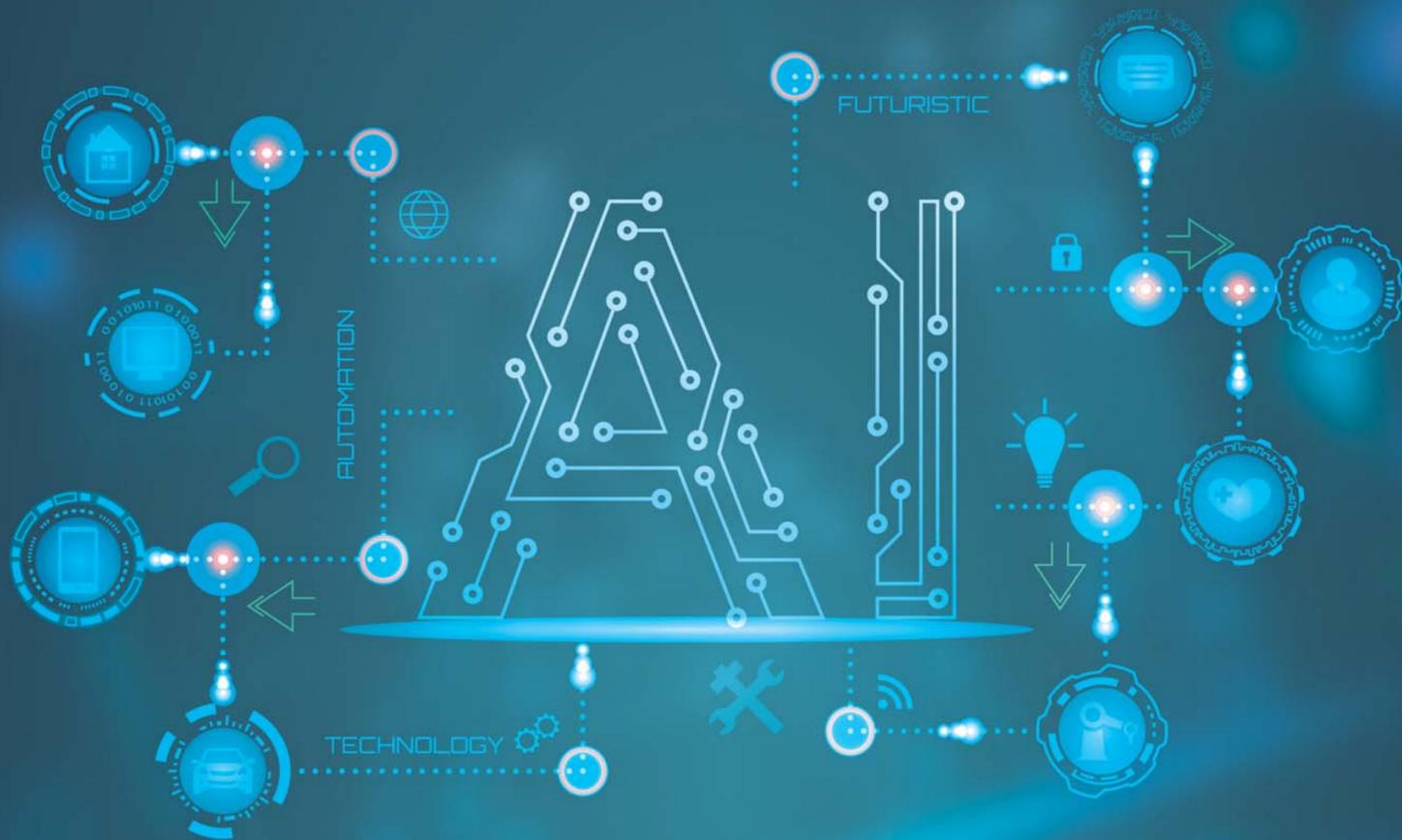
metro경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 강연 ▶14:2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5:00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15:40 정영조 KT 마스터 ▶16:20 오승택 에이모 대표



일 시: 11월 25일(수) 오후 2시~5시

등 록: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접속 :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방 식: 50명 선착순 참가 신청 및
 웨비나(코로나19 감염 예방 온라인 진행)

문 의: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매장판매 고집’ 스벅도 커피딜리버리 뛰어든다... ‘춘추전국’

스타벅스, 배달 테스트 매장 오픈
고객 피드백 경청·맛 유지 총력
“배달·온라인샵 이전부터 고려”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범 오픈을 앞두고 배달 주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 매장 방문을 조심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좌석 수를 줄이게 되면서 배달 및 온라인몰로 서비스로를 확장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코로나19에도 매출 부문에서 선방, 외형 선장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스타벅스는 매년 평균 100곳을 신규 출점하고 있는데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점포 수는 1473개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만 95곳이 새롭게 문을 열어 내년 초 1500점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오는 27일 스타벅스 역삼이마트점을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으로 오픈하며, 향후 배달 서비스 시행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 스타벅스 역삼이마트점은 고객 체류 및 주문 제품 직접 픽업이 가능했던 기존 스타벅스 매장과는 다르게 배달만 가능한 딜리버리 시범 매장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는 그동안에도 배달 진행 과정에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양한 테

스트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품질 유지가 가능한 음료 60여종, 푸드 40여종, MD 50여 종의 배달 가능 품목을 선정해 운영한다. 여기에 빅데이터 설문 및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토대로 구성한 세트 메뉴와, 배달에 최적화된 전용 음료와 푸드 등도 개발해 선보인다.

12월 중순에는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에 위치한 ‘스탈릿대치점’을 동일한 형태의 배달 테스트 매장으로 추가 오픈 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이 두 곳의 테스트매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피드백을 경청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SSG닷컴에 ‘스타벅스’ 온라인샵이 열린다. 일반 병

료나 상품 쿠폰은 판매된 바 있지만, 스타벅스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 판매는 이번이 최초다. 인기 푸드 메뉴 및 MD 80여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여기에 다 응답 2일 론칭 예정인 크리스마스 2차 시즌 MD 상품 20여종도 추가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스타벅스 푸드 상품은 샌드위치와 주스, 밀 박스(Meal Box), 베이커리 등 총 45종이다. 이 상품은 SSG닷컴 온라인스토어 네오(NE.O)를 통한 새벽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가 경쟁자인 이디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로컬 브랜드들이 잇따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

다. 배달 서비스도 일종의 ‘락인(Lock-in) 효과’라 한번 배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계속 이용하게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더라도 매장과 배달의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배달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당 브랜드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디야커피는 2018년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올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4~6월부터 주문량이 전년동기 대비 1000% 이상 증가했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도 올해 1~10월 전체 배달 주문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70% 늘었다. 카페 드롭탑도 배달 서비스 도입 이후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116%나 증가, 배달 주문 건수도 117% 늘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배달서비스나 온라인샵은 이전부터 고려해왔던 사안이다. 특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스타벅스는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증가해왔다. 해당 서비스들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검토해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를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4858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 기간 영업이익은 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 수와 운영 시간 조정, 테이크아웃만 제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4229억 원으로 누적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 연 매출 2조 원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더불어 배달 전용 매장과 온라인샵 운영으로 인한 인원 감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스타벅스는 꾸준히 매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늘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매장에 필요한 인원이 적어보일 순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상시 배치하고 있는 직원은 일정하다. 스타벅스는 고용창출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백지웅 신사업 담당은 “베타 테스트 성격의 운영으로 코로나 19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딜리버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최고의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힐링목적 미술, 시간·장소 구애없이 즐겨요”

인터뷰
오일파스텔 크리에이터 아일렛솔
재료 다루기 쉽고 선명한 색감
클래스 101 강의로 기술·조합 전달



오일파스텔 크리에이터 아일렛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동호회 모임 또는 야외 취미 활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취미·자기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일 파스텔 드로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재료도 다루기 쉬운 인기를 끌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오일파스텔 크리에이터 ‘아일렛솔(본명 전은솔)’을 만나 오일파스텔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취미미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아일렛솔은 좀더 많은 이들에게 오일파스텔의 매력을 알리는 게 목표다. 주로 자연풍경을 그린다.

“여행지의 모습이나 자연, 풍경을 그려요. 여행에서의 기억을 그림으로 남겨놓으면 좀 더 여운이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풍경이나 자연물들은 날마다 색이 바뀌는데 그런 매력적인 점 때문에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일파스텔의 장점은 페인팅 못지 않게 선명한 색감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특유의 몽글몽글한 질감 또한 장점 중 하나다. 아일렛솔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 재료로 오일파스텔을 추천한다”며 “섬세한 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볍게 그릴 수 있는 재료라 미술에 소질 없는 분들도 많이 입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오일파스텔에 대한 인기가 상승해 재료 수급에 차

질이 생기기도 했다. “위워보여서 재료를 구입했다가 막상 그리려니 막막해서 되파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오일파스텔은 재료 자체가 터프하고, 투박해요.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 작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모르는 게 오일파스텔의 매력입니다.”

아일렛솔은 클래스 101 강의에서 오일파스텔의 기본적인 기법부터 풍경을 그릴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색 조합 등을 전달한다.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나 문화센터, 취미 화실 등 오프라인 모임을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올초에 클래스101 MD님께서 온라인 강의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일파스텔 작가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오일파스텔로 반려동물 초상화를 그리는 수업을

열면 어떨까 싶어요.” 클래스 101은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클래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약 950여 개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택트 취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회원수는 올 1월 약 80만명에서 현재 누적회원수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아일렛솔은 올해 클래스101을 통해 오일파스텔 크리에이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으며, 8월에는 오일파스텔 책 ‘오일파스텔로 그리는 오늘의 풍경’도 출간했다.

“2020년은 클래스101과 함께 성장한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강생 중 한 분이 태교로 오일파스텔 드로잉을 했는데 힐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같이 오일파스텔로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하셨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 오일파스텔로 여행지의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원철 기자 tree6834@

말만 국내제품... 3형방탄복 사업 美 대리전

미 회사 라이선스 받은 국내 업체 경쟁

지난해 연말 특전사에 보급된 ‘3형 방탄복(일명 플레이트 캐리어)’의 문제를 보완할 제품으로 미국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제품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 미국 유명 전술장비 제조업체인 TYR TACTICAL(이하 TYR)사는 국내 기업인 헤세드와 합작으로 대형부스를 열었다.

해외 전술장비 업체가 국내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형 전시부스를 설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시부스에는 TYR의 생산품과 TYR의 기술제휴를 통해 만들어진 국군 화강암 위장패턴 및 특전파셀 위장패턴의 방탄복이 전시됐다.

TYR사의 EPHIC모델은 미육군의 차세대 보병 방탄복으로 채용될 예정인 제품군으로, 권총탄과 파편을 받아내는 소프트아머와 소총탄으로부터 전투원을 방호하는 하드아머(플레이트)를 모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방탄복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추진위는 앞서, 지난 7월 24일 계룡스파텔에서 제4회 히말라야 포럼을 개최하면서 TYR사의 한국형 개인방호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방탄복 및 방탄방호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인 이레산업은 미국 Crye사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AVS 플레이트 캐리어를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Crye사는 미국의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네이비얼 등 1선급부



TYR사의 라이선스를 통해 국내기업이 만든 특전사형 EPHIC 방탄복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 개설된 미국 TYR사 전시부스(왼쪽부터) /문형철 기자

대원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전술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다.

올해 입찰이 마감된 3형 방탄복은 국내 업체가 제안서 통과해, 현재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회사의 라이선스를 받은 두 업체가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특수부대원들은 TYR과 Crye 모두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에 때문에, 무리한 국산화 제품보다는 성능의 개선이 확실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해외기업들의 국내진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방산업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라이선스 획득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출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해외 기업이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큰 사업의 파이를 보고 들어왔다가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시장을 이용만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아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 文 대통령 제안 통했다

**G20정상들 ‘정상선언문’ 채택
“코로나 치료제·백신 공평 분배
개발도상국·최빈국들 지원할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G20 정상들은 자금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G20 정상들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은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4개 분야, 3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 액트 에이)”,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 코박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도 내년 6월까지 이어가기로 한 기존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G20 화상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 지원’ 항목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제안이 각국의 폭넓은 지지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G20 정상들은 또 환경 훼손 예방과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처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선언문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넓은 범위의 연료와 기술 선택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환경, 안전성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전날(22일) G20 정상회의 제2세션 의제 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文 대통령, 주일대사에 강창일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사진)을 내정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강창일 내정자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이후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로 지낸 인물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창일 내정자는) 당사국에 대한 대사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



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일본 동경대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이고,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通)”이라고 강 내정자에 대해 소개했다.

/최영훈 기자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 개발·생산

**검역본부, 접종부위 근육손상 줄여
“전량 수입하던 백신 수출도 가능”**

정부가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 개발에 성공, 시제품을 생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해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효능 평가 등 여러 가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톤 단위의 본 생산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생산한 시험용 제품이다.

검역본부는 2017~2020년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험생산 규모

(100l)의 제조공정 기술을 확립했다. 이후 자체 보유한 백신연구시설을 이용해 구제역 2가 백신(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 시제품을 생산했다.

구제역 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나타내며 백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안티바이러스 리서치’ 9월호에 실렸다.

A형 연천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A22 IRQ 백신과 같은 효능을 나타냈다.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

량을 2ml에서 1ml로 줄여 접종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했고, 기술개발을 통해 근육 이상과 같은 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제역 백신 시제품은 바이러스 방어 효과, 면역 지속기간 확인, 안전성 평가 등 여러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 백신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종현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은 접종 부위의 근육 손상을 줄이는 기술이 더해져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백신보다 한층 개량된 백신”이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그린바이오·스마트팜 등 농식품 벤처 10곳 선발

**농식품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행사를 25일(마케팅형), 26일(투자유치형)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참가기업 수는 494개사로 전년보다 약 10% 이상 증가해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예산과 본선을 거친 결선 진출 2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ICT 등으로 첨

단·신기술 분야가 늘었다.

이번 결선 행사에선 두 유형별 5곳씩 최종 10개 기업을 선발한다. 마케팅형은 제품 판매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투자유치형은 기술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평가 방법은 두 유형 모두 전문가 대상 발표평가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인데, 투자유치형의 경우 실제 투자자(VC)의 모의투자금액 환산 점수도 포함한다.

최종 선정 기업들엔 총 2억 원의 시상금과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등

상장이 수여된다. 또 정부사업 연계와 대·중견 기업의 후원으로 사업화자금, 상품기획, 유통점 입점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산업정책과장은 “올해 콘테스트가 그린바이오, 스마트팜과 같이 미래를 견인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농식품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며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가 창업역량을 키워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DN 정재훈전력융합사업본부장(오른쪽 세번째).

한전KDN,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난방공사·휴먼아이씨티와 맞선
기술협력·교류 위한 협약 체결**

한전KDN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휴먼아이씨티와 스마트 안전지원 기술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은 정재훈 한전KDN 전력융합사업본부장, 김진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기술본부장, ㈜휴먼아이씨티 강기현 대표이사가 참석,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한 지역난방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지원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플랜트 운영기술, 한전KDN의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경험, 휴먼아이씨티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표준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AI Vision 실증 및 기술개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확대 적용 및 고도화를 통한 현장 안전 강화 협력 ▲ICT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환경 체계 구축 ▲지역난방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개발 기술 및 안전지원시스템 판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 싹 다 바꾸겠다”

**이진복 前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며 내년 4월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스마트 신(新) 시티(Sea:Ty)’ 조성 등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출마선언에서 이 전 의원은 “멈춰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고, 부산시민의 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영망이 됐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은 무너져 부산 경제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위기의 부산’, 미래 비전이 없고, 먹고살 것이 없는 부산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오늘부터 유·초·중 다시 '1/3' 등교... 고3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교육부, 학사 운영기준 강화 적용
수능 전 날 검사시 당일 결과 통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면서다.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학교 밀집도도 강화된다.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내달 3일 열리는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전남·정북 등 호남권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본이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했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는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한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생 수를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수능 일정을 고려해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하로 유지된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서는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확대할 수 있어 해당 지역 학교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해 왔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

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준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는 전국 고등학교 등이 일찌감치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수능을 1주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능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그 전이라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서울과 제주, 강원 등 일선 교육청은 이미 고3 학생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강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는 19일부터 고3 학생들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 권고에 따른 학습 체계를 실시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관내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총 230교 가운데 67%인 153교가 고3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

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를 당일 받아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최소 10일에서 통장 2주 정도는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3 수험생 학부모는 "엄마들 사이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아이가 주로 스터디카페에 갔는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수능이 끝나도 곧바로 논술·면접 등 시험이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특히 대학수능시험을 전후한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후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달라"면서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디지털대성, KT와 비대면 교육 혁신 선도

디지털대성, 입시강의·논술 등 콘텐츠
KT, 원격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경험"

디지털대성은 KT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대성은 이번 사업 협력으로 KT가 구축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대성은 입시 강의부터 논술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입 온라인 교육 플랫폼 '대성마이맥'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해당 플랫폼



김희선 디지털대성 대표이사(오른쪽)와 김호배 KT 전무(신사업본부장)가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대성

을 지속적으로 확장, 고도화할 예정이다.

디지털대성 김희선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역, 환경, 학생간의 학습 격차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플리케이션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중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가 다를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홈페이지,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 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경우 C 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등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세훈·한용수 기자 hys@

황석원 교수팀, 방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고려대)

원활한 배뇨 유도 가능

고려대는 황석원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사진)팀이 삼성서울병원 및 Penn state 대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배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스템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높은 생체 삽입형 전자 소자를 방광에 결합하고(온도변화, 근육 신호, 수축/팽창) 제어 시스템(배뇨 유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11월 1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인체에 무해하고 유연·신축성이 높고 그물망 구조 플랫폼에 다양한 센서와 광유전학 시스템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부피가 변화

하는 방광에 안정적으로 결합했다. 이를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저활동성 방광 배뇨 질환 모델에 적용해 실시간 방광 활동(온도변화, 근육 신호, 수축/팽창)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소변 배출 시점을 분석하고 광유전학 자극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현진 기자

홍근표 세종대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세종대는 홍근표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사진)가 수행한 연구과제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홍근표 교수는 '영양과 식감을 개선한 고령자 맞춤형 기초식품 개발'을 주제로 연구해 생명·해양 분야에서 뽑혔다. 홍 교수는 초고압, 저온, 숙성을 통한 연한 육류 식품과 포화수증기를 이용한 어류 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대학-지역 협력 네트워크 포럼 성료

호서대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센터는 지난 21일 '2020 CanDo Leader 성과 발표회 및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CanDo Leader' 프로그램은 '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라는 호서대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수월성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북파티(Book Party)·창의융합·봉사 프로젝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4차 산업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 김누리 학술위원장, 선문대 IT교육학부 김진목 교수,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신선영 사무국장 등 프로젝트별 전문가



온라인 '2020 CanDo Leader 성과발표회' 모습 /호서대

와 참여 학생 및 지도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미션 게임개발, 언택트 사회 적응 코드북, 모바일 플랫폼기반 소방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총 21개 프로젝트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주제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www.pdna.co.kr

연어의 힘으로 빛나다

P+DNA 세럼 & 크림

3배 강화된 연어DNA로
광채피부를 경험하세요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동안피부를 위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50%」특별할인

P+DNA 런칭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제품을
파격가에 드립니다

[*sodium DNA 1000ppm]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고롭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락투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력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현대위아, 코로나 의료진 위해 응원물품 전달
현대위아는 23일 코로나19 의료진에 1400만원 상당 응원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선물과 성금은 경기도 의왕과 평택, 안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 보건소에 전달됐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신한카드-LG유플러스와 '디지털 도서관' 개관
신한카드는 서울시, LG유플러스와 함께 505번째이자 디지털 도서관 1호인 '신한카드 아임인 도서관'을 개관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이번 개관식에 (왼쪽부터)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황인선 서울혁신파크 센터장, 정선에 서울시 혁신기획관 국장,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정영훈 LG유플러스 금융영업담당 등이 참석했다. /신한카드



도요타, 주말농부 가족들과 김장김치 500kg 기부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올해에도 김치를 나눴다. 도요타는 노숙인 무료 급식시설 안나의집에 김치 500kg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한 김치는 주말농부 가족들과 함께 담근 것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도요타자동차 사장(왼쪽)과 오현숙 안나의 집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요타코리아



교원그룹, 사회공헌 활동 '서울시장 표창' 수상
교원그룹이 '2020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및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동 복지 증진 및 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실천한 사회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으면서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후원, 교육기업 최초 바른인성 캠페인, 다문화·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은 교원그룹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교원그룹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새마을회 김장나누기 후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3일 안양시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진행된 안양시새마을회-안양시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김기현 행정부원장, 심정은 간호부장, 이승대 총무팀장은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함께 담근 3000포기 김장 김치는 안양 시내 어려운 이웃과 홀로 계신 어르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한림대성심병원

고객관리가 최고의 경쟁력



이상현
창업 칼럼

얼마 전 한 콘퍼런스에서 창업에 성공한 CEO들에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힘이 되어준 습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膺亡齒寒(승망치한)”이라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의 이 한자성어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공한 CEO들의 삶의 철학이 깃들여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바로 사람이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불특정고객이 곧 수익성의 근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창업은 모두 서비스업이라 한다. 소위 2:8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중성고객들은 그만큼 표적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충성도가 사업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고객은 왕이다.’ 몇 해 전까지의 구호였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은 귀신

다’라고들 한다. 그만큼 고객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고객의 소비성향은 변화한다. 늘 같은 제품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안심, 안전, 건강, 환경, 복고, 가격등의 키워드로 구매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환경과 시기, 그리고 판매조건에 따라 구매력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은 비대면을 기반 사업의 영역을 성장시키고 있다.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과 배달을 혼용한 형태의 사업으로의 전환과 탑재는 기본이다. 하지만 소비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로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속하여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명제는 기본이다. 다만 어떻게 소비구조를 전환하느냐가 사업성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불황기 영업전략 중 최선이자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단골에게 충성하라’ 라고 할 수 있다.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노동력대비 투자비용이 단골에게 추가 매출을 발생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을 훨씬 웃돈다. 따라서 최고의 대안은 선택과 집중 중에서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단골고객을 상대로 하는 세심한 인맥관리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최대한의 경쟁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胃氣(위기)라고들 한다. 위기(crisis)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다. 또한 위기는 危險(위험)과 幾回(기회)라는 함축된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창업자는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고객 인맥관리가 선행지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창업은 전쟁이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LG U+, 협력사들과 독거노인에 식료품 지원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
식료품 꾸러미 600가구에 전달

LG유플러스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협력회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유플러스 및 U+동반성장보드 회원사인 협력사 소속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가해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6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 인원만 참가하여 진행됐는데,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파인원커뮤니케이션



LG유플러스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협력회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를 펼쳤다. /LG유플러스

선즈, 모임스톤, 명신정보통신의 공동 기부로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후원 대상 어르신은 지난해 대비 50가구 증가했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의 26개 협력회사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시행내역을 공유하며 LG유플러스와 협력사

간 및 협력사들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이경길 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사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한국, 생활체육뉴스, 주간스포츠한국방송 논설위원 이규운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이영열
- ◆농촌진흥청 △과장급 △국외농업기술과장 장안철
- ◆미래에셋대우 △신임 △인프라투자본부장 반상우 △서울1지역본부장 송관훈 △VIP솔루션본부장 류희석
- ◆대신금융그룹 △대신증권 △상무 신규선임 △IPO담당 나유석 △WM추진본부장 신재범 △재경1WM본부장 강준규 △전략지원본부장 강윤기 △부사장 승진 △WWM사업단장 송혁
- △전무 승진 △서부WM본부장 정연규 △전무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진승욱 △대외협력담당 조경순 △상무 전보 △고객자산본부장 겸 홍보 부부장 김호중 △부부장 승진 △정보보호부

- 장(이사대우) 박현식 △대신에프앤아이 △상무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이성근 △대신저축은행 △상무 신규선임 △스마트금융본부장 현준호 △본부장 승진 △이사대우 영업본부장 장석철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대안투자그룹장 김건홍 △대신자산신탁 △상무 신규선임 △경영지원부문장 오홍진
- ◆신아일보 △광주광역시 취재본부장 김상진

부음

- ▲김두수씨 별세, 김동욱(KBS 대구방송총국 촬영기자)씨 부친상 = 23일 오전 9시,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VIP실 203호, 발인 25일 오전, 052-272-1111
- ▲김신환씨 별세, 안성현(정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씨 장인상 = 23일 오전 5시,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국화1호실, 발인 25일 오전

- 9시, 043-298-9200
- ▲조문영씨 별세, 박재희씨 남편상, 조옥란·조성기(동아일보 출판관리팀장)·조광란·조영기(삼원특수지 상품유통팀 과장)씨 부친상, 손용주·최진(산들처럼 대표)씨 장인상, 오소연·정은선씨 시부상 = 23일 오전 5시,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440-8921
- ▲이태원씨 별세, 이상숙(두원공과대학 기획처)·이상석(대구MBC 보도국 부국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9시 40분,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5일 오전, 053-620-4647
- ▲장선욱씨 별세, 백용만(아이앤아이건설)·춘희(전 초당중학교 교사)·용삼(전 대림여중 교사)씨 모친상, 장용동(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전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씨 빙모상, 백승진(시화병원 신경외과 과장)씨 조모상 = 23일 오전 2시, 수원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1월 25일 오전 7시, 031-219-4581

GS리테일-농협하나로유통, 맞손

신상품 개발, 배송 플랫폼 공유 등 광폭행보



양사 MD, 상품 공동기획·개발
협업 도시락 3종 내달 판매 돌입

오뚜기 진라면 등 상품 16종
제조사서 공동매입, 함께 판매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와 공동사업 추진

GS리테일이 농협하나로유통과 손잡으며 업무 제휴의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GS리테일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3일 서울 신촌 소재의 하나로유통 본관에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의 조운성 사장과 김종수 전무, 농협하나로유통의 김병수 대표이사과 이석희 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사가 ▲신상품의 공동 개발 ▲배송 플랫폼의 상호 공유 ▲해외 소싱의 공동 추진 등과 관련한 사업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품의 공동 개발을 위해 양사의 구매 담당자(MD)들도 머리를 맞댄다. 양사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해 생산 물량은 늘리고 원가는 절감해 소

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신선한 농·수·축산품 식재료로 GS리테일이 도시락 3종 등을 생산해 수도권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50여개 점에서 판매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오뚜기 진라면 등 16종의 상품을 제조사로부터 공동 매입해 함께 판매

/GS리테일

유통단신



인기상품 최대 50% 할인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

롯데온(ON)이 블랙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

롯데온은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해 시즌 인기 상품을 포함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롯데온은 지난 달 23일부터 진행했던 '롯데온세상'을 비롯해 '11월 퍼스트만데이', '어게인 롯데온세상'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의 마지막 할인 행사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이색메뉴' 고객 입맛 공략 이마트24 '연어덮밥' 출시

예능 '맛있는 녀석들과' 콜래보 스팸김치라이스샌드 등 2종



맛있는 녀석들 스팸김치 라이스샌드(좌), 직화너비아니 라이스샌드

편의점이 기존에 없었던 색다른 메뉴를 통해 고객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24는 오는 24일 도시락 신메뉴로 '연어덮밥'을 출시한다. 연어덮밥은 기존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회덮밥 메뉴로, 밥만 렌지업 후 연어회, 솔방울한치, 계란말이, 맛살, 야채와 동봉된 초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격은 5500원이며, 수도권에서 먼저 출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24가 회덮밥을 선보이게 된 것은 육류 위주로 운영되는 편의점 도시락에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신메뉴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이마트24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콜라보레이션 상품으로 스팸김치라이스샌드와 직화너비아니라이스샌드 등 총 2종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청정원, 손쉬운 조리 '야식이야' 4종

배달음식 대비 뒷처리 쉬워

대상 청정원이 기존 안주 카테고리에 더해 신규 HMR 브랜드 '야식이야(夜)'를 론칭하며, 야식 HMR 시장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정원 조미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로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야식이야(夜)'는 '야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직접 언급해 대표성을 나타냈으며, 밤에 먹는다는 의미로 '야(夜)'자를 활용해 기존 안주 HMR 브랜드 '안주야(夜)'와 맥을 같이 했다. 외식 혹은 배달시켜 먹던 치킨을 집에서 간편하고 맛

있게 즐길 수 있게 했으며, 평소 야식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정원 신규 야식 브랜드 '야식이야(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맛을 구현한 ▲치즈시즈닝 뿌렸닭 ▲고추듬뿍 넣었닭 ▲바삭하게 튀겼닭 ▲매운맛 입혔닭 등 4종(사진)으로, 최근 가정 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배달 음식 대비 뒷처리 걱정없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다는 장점과 1~2인이 즐기기에 딱 좋은 양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비비안, 라방서 전례 없던 '특가 진행'

오늘 낮 12시부터 '최대 80%'



24일 낮 12시부터 네이버 쇼핑 라이브서 비비안 백화점 제품을 할인하는 커머스가 진행 된다.

비비안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60분 가량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최고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정기적인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던 비비안이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 구성은 브라지어 팬티 세트 6종과 일회용 생리대 등이며 전례 없던 특가로 준비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새로 출시된 비비안 일회용 생리대 '비비안:쉽'을 공개한다. 비비안 일회용 생리대는 팬티 사이즈에 적합한 7cm

너비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속옷과 신체에 딱 맞는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 올해 트렌드 컬러인 '클래식 블루' 색상의 브라지어와 와이어가 없는 브라지어 등 다양한 종류의 란제리도 선보여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11번가, 직구상품 최대 70% 할인판매

30일까지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커머스포털 11번가가 미국 최대 연말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직구 인기상품을 정상이 대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할인 상품 수는 총 280만여 개다.

8일 간의 행사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영양제, 비타민 등 건강식품부터 LG, 삼성전자의 대형 TV와 몽클레어 아우터, 일리 커피머신, 스타우브 냄비, 버버리 버킷백, 메종키즈네 맨투맨, 탬퍼 토퍼 등 직구족들의 수요가 꾸준히 높은 인기 상품들이 매일 한

정수량 특가로 쏟아진다.

이번 행사는 지난 썸머 블랙프라이데이의 성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선물 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특가 라인업을 구성했다. 직구족들은 굳이 해외사이트를 가지 않아도 '11번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상품을 주문하듯 검색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블프 쿠폰' 2종인 '15% 할인'(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10% 할인'(1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0만원) 쿠폰을 발급하고, 여기에 카드사 '11% 할인'(4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중복해서 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U, 점포를 미술관으로 '우리동네 아트갤러리'

CU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갤러리로 변신한다.

CU는 신진작가들과 손잡고 점포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미는 '우리동네 아트갤러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동네 아트갤러리 프로젝트는 올해 초 BGF리테일이 시작한 '청년작가 응원 캠페인' 2탄으로 기획된 것으로, 점포 내외부 공간을 청년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작가들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동네 아트갤러리 1호점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CU올림픽공원점으로 윤세영 작가와 이요한 작가가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본도시락

배민 3000원 할인쿠폰

본아이에프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이 23일부터 27일까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본도시락 메뉴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최근 새롭게 선보인 겨울 신메뉴 짬뽕순두부와 여수꼬막덮밥 출시 기념 및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재확산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자 진행하게 됐다.

/조효정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FDA 승인 1주년

월 처방 2260건 '발작 완전 소실' 가치 제공

보험 등재율 80%

美 출시 이후 처방 빠르게 확대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제품 성장
내년 초 한·중·일서 임상 3상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가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1주년을 맞았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발작 치료제로, 임상시험에서 '발작 빈도 감소율'은 물론이고, '발작 완전 소실률'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세노바메이트는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약물 투약기간 중에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발작 완전 소실'은 환자의 일상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뇌전증 신약 선택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지난 5월 세노바메이트를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서 자력 출시한 이후 처방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바이오팜 조경우 사장은 1주년을 맞아 "기존 약물을 복용함에도, 계속되는 발작으로 고통 받는 전세계 뇌전증 환자들에게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완전 소실'이라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기쁘다"며 "세노바메이트를 넘어 R&D 투자를 통해 신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분야 및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상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들과 함께 비대면 영업,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조건 속에서도 세노바메이트의 3분기 월평균 처방건수는 2260건으로, 경쟁 약물들의 출시 초기(월평균 처방건수 1300여건) 대비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했다. 세노바메이트의 보험 등재율(9월 말 기준) 또한 약 80%에 도달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2월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지역 상업화를 위해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에 대한 IND 승인을 획득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내년 초 일본, 중국, 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올 겨울패션 3色 트렌드

#짧게 #화려한 #리버시블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상체패션 인기 의류에 친환경·실용성 가치 적용

올해 겨울 패션은 '숏패딩', '화려한 상의', '리버시블' 중에서도 골라두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가지 키워드가 요즘 의류의 특징이다.

구스 다운 등 충전재가 들어가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발열 기능을 적용하는 등 겨울 패션은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워 의류의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만큼 패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대목으로 여기는 철이다. 고가 제품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저격하는 유행 아이템들이 때때로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2~3년간 아우터의 절대 강자였던 롱패딩이 지고 짧은 길이의 숏패딩이 뜨고 있다. 통상 패딩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의 숏패딩(70~80cm)과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100~110cm), 그 중간 길이의 미들패딩(80~99cm)으로 구분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은 "이번 2020년 F/W 시즌 숏패딩의 매출이 지난 2019년 F/W 시즌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섬의 숏패딩 대표 제품으로는 랑방컬렉션 '트위드 블록 구스 다운 점



한섬 랑방컬렉션의 '트위드 블록 구스 다운 점퍼' 이미지. /한섬

퍼'가 있다. 트위드 텍스처에 글리터 원사를 부분적으로 믹스해 여성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 제품이다. 또한 캐주얼한 라인으로는 베라인 칼라 탈부착이 가능한 시스템의 '디테치블 칼라 구스 다운 점퍼'와 폼스튜디오의 구스 다운 후드 점퍼 등이 인기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화상회의 등을 할 일이 늘자 바스트 위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디자인의 상의가 늘고 있다.

특히 자칫 심심해질 수 있는 겨울 패션을 재미있게 완성해줄 니트 아이템들이 속속 출시됐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빈플레이디스는 이번 시즌 클래식한 패턴의 니트 스웨터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한해 뜨거운 화두였던 친환경·실용성의 가치가 의류에도 적용돼 '리버시블' 아우터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시지바이오-대웅제약, 줄기세포 활용 재생의료 사업 강화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

시지바이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영역을 강화한다.

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대웅제약 줄기세포제조소에 CDMO하는 방안이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MOU를 통해 제조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글로벌 규정에 맞춘 생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3요소인 세포, 지지체, 성장인자의 바이오 융복합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자가지방에서 유래된 세포들을 전자동으로 분리해내는 셀유닛(Cellunit)에 기반해 당뇨발, 척추, 흉터, 연골 재생 등의 세포기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탄탄히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오른쪽)와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쌓아왔다. 자가지방유래 세포기반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세포치료제 개발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임상 연구, 품목허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최근에 발효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지바이오가 확보한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더해 국내외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한 강력한 인체조직 재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대웅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CMO 및 CDMO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전세계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CDMO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여성암병원 "일기 쓰기로 암 함께 극복해요"

고잉 온 다이어리 참가자 모집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환자 및 가족이 일기 쓰기 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한 달 간이다.

울림푸스한국과 대한암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암 발병 후에도 아름다운 삶은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암 환자나 가족이 4주 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세줄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짧은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일기를 작성하는 참가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응원 상품이 제

공되고, 다른 참가자의 일기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일기와 사진은 향후 책이나 작품으로 엮여 병원 및 온라인에 전시될 예정이다.

울림푸스한국 경영총괄부윤영조 부문장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요즘, 언택트로 실시되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통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마운티아, 30일까지 전 품목 10% 할인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비와이엔블랙야크관계사 동진레저의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가 '마운티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운티아는 오는 30일까지 전 매장 과 공식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전 품목 10% 할인을 비롯해 다운과 세트 구매 시 추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운 자켓을 구매하면 금액별 추가 할인해주는 '다운 할인전'은 10만

원, 2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2만원, 4만원을 할인해주고, 동진FC회원은 1만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턱다운, 구스다운, 마운티아 프리미엄 에코다운 등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의 제품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트 제안전'을 열어 마운티아가 추천하는 자켓과 베스트 중 2품목 이상을 구매하면 20%가 추가로 할인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발까지 총 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원은미 기자

HK이노엔, '케이캡정' 몽골·싱가포르 진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한국 30호 신약 케이캡정이 몽골과 싱가포르에 진출한다. 케이캡정은 2015년 중국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를 꾸준히 넓혔다. 몽골과 싱가포르까지 더하면 케이캡정은 국내를 포함해 총 26개 국에서 활약한다.

HK이노엔(inno.N)은 최근 몽골 및 싱가포르 현지 제약사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정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몽골에서는 현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 회사인 모노스 파마가 올해부터 10년 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케이캡정을 독점 유통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약품유통회사인 UITC가 출시 후 8년 간 독점 유통한다. 몽골에서는 내년, 싱가포르에서는 2022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세경 기자

현대차그룹, 군 장병 응원 '온택트 소통 콘서트'

'군인의 품격' 온라인 콘서트 진행
이상화 선수·이국종 교수 등 강연

현대자동차그룹이 온라인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대차그룹은 군 장병 대상 사회공헌활동 '2020 군인의 품격 온택트 소통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다.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콘서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과 국방부 유튜브에 23일과 30일, 12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콘서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콘텐츠 영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라는 주제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이상화 선수, 다류



'2020 군인의 품격' 온(ON)택트 소통 콘서트에서 MC 안현모씨와 이상화 선수가 "승리하는 마인드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토크쇼 후 포즈를 취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든 김진만 PD, 국내 외상외과 분야의 개척자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강연하는 내용이다.

또 3명의 연사별로 각각 다른 부대를 매칭해 해당 군장병들의 '고민상담 코너', 편

지 전달 이벤트인 '사연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의 사전 참여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이 온라인으로 연사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벤츠, 장애인·독거노인에 '겨울나기 키트'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 임직원들이 모여 이웃들과 온기를 나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츠 코리아 계열사인 파이낸셜 서비스와 모빌리티 임직원들이 모였다. 힐케 안센 부의장을 비롯해 30여명

임직원들이 서울스퀘어빌딩 본사 회의실에서 키트 150개를 제작했다.

키트는 장갑과 목도리, 메시지 카드로 구성했다. 직접 벤츠 로고를 새겼으며, 메시지 카드도 손으로 작성했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금천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힐케 안센 부의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가 추운 겨울



벤츠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를 만들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내내 사회 취약계층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아는 것이 적어도 유식한 사람과 사귀어서 이해를. **48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60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72년생** 오후에 큰일이 계약. **84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 37년생**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49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할 터. **61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버지려해야 할 것. **73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85년생** 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 38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62년생** 직장에 이종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74년생** 붉은 색이 행운을. **86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 39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51년생** 배우자의 의견중중. **63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75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87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 40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52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64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76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돌려간다. **88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할.
- 41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53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5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7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은 일부터 해 나가보라. **89년생** 태교교육은 언행부터 신중하.

- 42년생**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54년생** 정심무장을 더 단단히. **66년생** 낙락장승(落落長松)이 옛말이던가. **78년생** 세상이 각박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90년생** 카페에서 한 잔의 여유로운 커피를 마셔보자.
- 43년생**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55년생** 가을메미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주변 소란. **67년생** 조상님제사에 참석하도록. **79년생** 몸에 꽃필 무렵이면 비가 많이 온다. **91년생** 계획 없는 이직보다는 인내를해야.
- 44년생** 재산 나눠주고 동거식사거속 하지 않도록. **56년생** 모여서 소란스럽다. **68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0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2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 45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도록 할 것. **57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69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8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93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 46년생** 의지할 데 없는 노년 신세. **58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70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82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94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 47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자녀 돌보기. **59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빠다귀를 산다는 표현. **71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83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95년생** 일이 순조롭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학습법
문제출제: 손호성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1	2		6	4	9		A	5		
5	6		1	2	9	7		B		
	B	C	9	5	A	3		2	4	
3	4		1	5	C			A		
C	8	7	3	9	2	4	5	B	1	6
	9	5		6	B		3	C	8	
A	C	9		4	6		2	7		
4	7	5	1	9	2	A	8	6	B	3
	3		B	5	7			4	9	
9	4		C	1	6	3	5	8		
B	7	8	2	4		6		1		
6	3		7	9	5	4	2			

부동소수점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새로운 과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V	Z	P	8	9	6	8	L	Q	E	9
L	6	9	Q	V	P	E	Z	8	L	9
L	8	9	E	9	I	8	Q	V	P	Z
6	P	L	V	L	9	Q	8	Z	8	E
E	8	Q	9	8	V	Z	6	L	9	L
9	L	8	L	L	E	9	V	8	6	Q
8	Q	E	P	8	9	L	V	9	L	6
9	I	8	V	P	Z	6	E	L	V	8
Z	V	6	L	Q	8	9	L	9	8	P
P	9	Z	L	E	L	V	9	6	Q	8
8	E	L	6	Z	Q	I	8	P	9	V
Q	V	8	6	8	P	9	E	Z	L	I

다가온 '코로나 수능' 다 함께 잠시 멈출 때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대한민국 고3 결전의 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됐다. 수능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험생들은 좌석마다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시험에 임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닷새 연속 300명 선을 웃돌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권의 거리 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한 지 닷새 만이다. 2월 말 1차 대유행과 8월 2차 대유행에 이어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면서 겨울철 대유행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3차 대유행에서는 1차와 2차와는 다르게 젊은층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초 확진자가 6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 당국이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했지만,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능 차질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크다.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은 일상 생활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차 유행과 달리 집단감염이 5명 내외 소규모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개입 조처만으론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62개 집단감염이 발견됐다. 3차 유행의 한복판에 선 이상 수험생뿐 아니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온 국민이 잠시 멈추는 건 어떨까. 사실상 수험생의 12년간 학교생활은 수능을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교육과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수능과 방역을 준비해야 하고, 수험생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호소를 새겨들 때다. /hji@



김상회의四季 체질과 보양식

올여름은 긴 장마 때문인지 무더위가 예년보다 덜했다. 여름 무더위가 고생이기는 하지만 사실 계절 가리지 않고 날마다 피로에 시달린다. 해야 할 일은 쏟아지고 스트레스는 쉬지 않고 몰아닥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기를 돋워줄 보양식을 찾는다. 보양식이라고 하면 흔히들 더운 여름에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양식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필요하면 언제나 먹는 음식이다.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모두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최고의 효과는 자기 체질과 맞아떨어질 때 나타난다. 사상의학으로 구분해보면 체질은 네 가지로 나뉘고 그 체질에 따라 음식 궁합이 달라진다.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태양인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소화가 쉬운 음식들이 좋다. 잘 어울리는 보양식은 낙지나 해삼을 꼽을 수 있다. 태양인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체질이다. 상체가 약하고 하체가 잘 발달했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좋는데 장어나 추어탕 같은 음식이 해당한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게 특징이다. 찬 성질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잘 어울리고 여름에 즐겨 먹는 냉면이나 메밀국수는 몸의 열을 식혀준다. 소양인은 비위가 좋지 않은 체질이다. 몸도 차가운 편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보양식으로 알맞다. 삼계탕이 잘 어울리는데 닭과 함께 끓이는 인삼이나 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

여름에 복날이 되면 보양식 집 앞에 길게 선 줄을 매년 본다. 보양식이 무더운 여름에 몸을 회복시켜 주지만 여름 뿐 아니라 몸이 힘들고 기력이 부족할 땐 언제나 보양식을 먹는 게 좋은 선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80호

매출 1조 코앞... 신용등급 상향... SK매직 곳곳 '장밋빛'

무보증사채 등급전망 한단계 올라 3·4분기까지 누적 매출 7625억 환경분야 진출·해외 공략 '순항'

올해로 SK그룹 품에 안긴지 5년째가 된 SK매직이 신용등급 잇단 상향, 매출 1조원, 렌탈누적계정 200만개 달성 등 곳곳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준비하던 증권 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 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SK매직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SK매직의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A0(안정적)에서 A0(긍정적)으로 한단계 올렸다.

한기평은 SK매직에 대해 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렌탈사업 계정수 증가 등에 힘입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업안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우수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보유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SK매직은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762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8757억원, 3분기까지는 6464억원이었다. 올해 3분기 매출까지만으로도 지난해의 87% 수준을 이미 달성한 셈이다. 특히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매출 1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기세척기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180% 이상 증가했고, 집안에서 요리를 많이 하면서 전기오븐 판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수기, 비데 등 렌탈 계정도 꾸준히 늘어 지금까지 196만 계정(누적기준)을 달성했다. 올해말까지 200만 계정도 충분히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분야 진출이 대표적이다.

앞서 SK매직은 식물재배기 사업 진출을 위해 가정용 스마트 식물재배기

기업인 에이아이플러스(AIPLUS) 지분 100%를 22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인 C-LaB 출신인 에이아이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가정용 채소재배기 '플랜트박스(PLANTBOX)'를 개발한 회사다.

플랜트박스는 온도, 습도,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셋팅해 관리가 어려운 식물재배를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특히 단순 식용 재배만이 아니라 공기정화 등의 효과와 함께 교육 및 관광 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단체, 각종 상업시설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매직은 또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합성수지(PCR ABS)를 적용한 '올클린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며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매출 성장, 신용도 상승, 사업

확장 등으로 SK매직이 추진하고 있는 IPO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SK매직은 2018년부터 미래에셋대우, KB증권, JP모건 등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증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류권주 SK매직 대표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2년전 약속했던 목표인 'Vision 2020'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져 본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제품 품질혁신 ▲원가절감 노력 ▲서비스 품질 혁신 ▲차세대 ERP·BRP 완수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Vision 2020'을 넘어 새로운 목표인 'Next To-be(Vision 2023)'를 수립해야 하는 해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말레이시아 법인의 성장을 견인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매직은 현재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해외거점을 두고 현지와 주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말련 친환경 시장' 진출 해답 찾는다

'한-말련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중진공,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태양광·풍력 등 정부시책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친환경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오는 30일 '말레이시아 그린테크놀로지 산업 동향 및 정부지원 시책 웨비나'와 '제2차 한-말련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진공은 국내 그린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말레이시아 친환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원을 총괄하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과 함께 이번 웨비나를 준비해왔다.

웨비나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현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그린인증, 그린금융 등 다양한 정부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 지원(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말레이시아 그린테크놀로지·기후변화센터) ▲태양광 에너지 산업과 비즈니스 성공사례(한화에너지 이선택 팀장)가 준비돼 있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현지에서 태양광 모듈 및 셀을 생산하고 있어 현지의 생생한 정보전달이 기대된다.

웨비나 참가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외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은 또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 간 '한-말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도 연다. 그린뉴딜,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12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며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현지기업과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중진공 박선근 글로벌사업처장은 "친환경은 정부의 그린뉴딜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발전을 이끌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말레이시아 정부 및 산업협회 등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크리스마스마켓 우수 중기상품 후보 선배

중기부, 200개 후보군 선별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 크리스마스마켓에서 판매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200개 후보군을 선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종 100개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200개 후보 상품 중 소상공인 상품이 170개로 가장 많았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26개, 4개로 뒤를 이었다.

상품군별로는 일반 식품과 간식류가 각각 54개, 45개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파티용품(43개), 생활·주방용품(37개), 의류 및 액세서리(5개), 기타(16개) 등이다.

크리스마스마켓 상품 후보군답게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초콜릿, 쿠키, 케이크, 밀키트 등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제 캔들, 풍선, 장미와 같은 파티용품도 다수 등장했다.

그 밖에도 브랜드케이(K), 백년가게

상품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투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카카오톡 채팅창 배너 및 다음(Daum) 모바일 포털사이트 배너를 통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에 참여해 크리스마스마켓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3개의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투표와 댓글을 작성해 참여하는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등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마켓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로하고 디지털경제를 맞아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공개 행사"라며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들이 국민에게 관심과 선택을 받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까사미아, 연말 맞이 홈파티 소품 특별할인

신제품 가구부터 다양한 인기상품

까사미아는 연말을 맞아 12월20일까지 '까사미아와 함께하는 겨울 홈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올 연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까사미아의 신제품 가구부터 홈파티를 위한 소품 및 테이블웨어까지 다양한 인기상품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우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가구를 특가에 선보인다. 숙면을 돕는 까사미아의 신제품 매트리스와 토퍼를 30% 할인가에 제공하며 '알도', '레토' 등 신제품 침대도 10% 할인한다. 집콕 생활의 필수품으로 떠오른 1인

리클라이너 신제품 2종도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다이닝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적 소재를 갖춘 '세피아', '카르네' 등 신제품 다이닝 테이블을 20% 할인한다.

LED 캔들, 미니 트리 등 집 안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 줄 소품류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캐릭터 '푸빌라'를 적용한 한정판 테이블웨어 또한 2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다. 푸빌라 시리즈는 홀리데이 한정판답게 연말 감성을 자아내는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 홈파티 테이블 장식에 제격이다.

/김승호 기자



모나미 활명수 123주년 기념 볼펜

모나미가동화약품의 '활명수'와 협업한 153 볼펜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활명수X모나미 153 볼펜은 무광 메탈 소재의 볼펜이다. 활명수 브랜드의 대표 색상인 딥그린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0.7mm 필기선의 검정 고급심을 사용해 부드러운 필기감이 장점이다.

이번 제품은 23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123개 한정 수량으로 선판매한다.

/백지연 기자

세라젬, 2020 브랜드 고객만족도 1위

의료기전 부문

세라젬은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한 '2020 브랜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의료기전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0 브랜드 고객만족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다. 조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재구매 의향 ▲품질 만족도 ▲가격 만족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업별 순위를 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소비자 1419명 대상으로 진



세라젬이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한 '2020 브랜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의료기전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라젬

행했다.

세라젬은 SCI급 국제저널 논문 등재 등 소비자 신뢰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임상과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지연 기자 wldius0249@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시작

언택트,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 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KT Enterprise가

AI, Big data, Cloud의 앞선 기술과
기업 유무선 통신의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나주혁신도시, 기업유치·일자리 전국 으뜸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총 사업체수 5년간 36% 늘어
고용 1.8만명 늘어 64% 증가



빛가람 전망대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광주·전남(빛가람) 공동 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근 5년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주 혁신도시는 사업체, 종사자, 여성고용,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나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성장동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주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지난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

7633개로 2007개(35.7%) 늘어나며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웃도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나주 혁신도시 다음으로는 충북(29.1%)이 뒤를 이었고 부산(8.4%)이 5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체 증가는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최근 5년 간 이뤄진 고용증가율 또한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 총 고용 수는 2만8696명에서 2017년 4만6381명으로 63.6%(1만8135명) 증가하며 이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증가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인력의 고용 증가율이다.

나주 혁신도시 사업체의 여성 고용 수는 2012년 1만2403명에서 5년 뒤 1만8910명으로 52.5%(6507명) 크게 뛰며 증가율이 전국 탑 순위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에 기준한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유관업종 관련 종사자의 집적도 수준도 약 4.6배가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이전 비 기반산업이 현재 기반산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토연구원은 집계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의 질, 즉 안정적 일자리 창출 증가와 직결되는 상용 노동자 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

게 조사됐다.

나주 혁신도시의 상용 노동자 수는 2012년 1만8528명에서 2017년 3만2447명으로 75.1%(1만3919명)나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혁신성장 부문 종합결과에 대해 "혁신기반과 모두 지역의 혁신역량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증가 및 안정적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고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나주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총 391개로 이중 혁신산단,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유치 기업은 278개였고 광주 등에 유치한 기업은 113개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는 나주 혁신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동구리 호수공원 전경.

화순군 '산림치유 도시'로 12개 분야 예산 240억 투입

화순군이 산림관광, 휴양, 치유, 정원 등 12개 분야에 2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산림치유·복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군 전체 면적의 73.2%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휴양·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동구리 호수공원을 화순 대표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도심과 가깝고 다른 지역의 접근성이 좋은 만연저수지 일대 2만2214㎡에 동구리 호수공원을 조성,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 왔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ksd1008@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 내년 정부 신규사업 채택

박우량 군수 추진 수산정책
군비 27억 투입 총 8척 임대

국비 38억원을 요구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이 중앙정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어선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박우량 군수의 수산정책이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예산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 등이 적극 나서 '어선구입 임대사업'에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자본 여건상 어려웠던 청년 어부들에게 어선 임대를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은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단법인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를 구성, 현재까지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에 있다.

군의 '청년소득 임대어선' 사업은 어업에 필요한 어선 및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해서 어업인에게 연간 사업비의 0.5%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면서 어업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도 넘겨줄 계획이다. /전남=신안=안행주 기자 abcd@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론칭행사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 매력한우' 갤러리아백에 론칭

올해 '대통령상'에 빛나는 영암매력한우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고메이494와 고메이494한남에서 론칭행사를 가졌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론칭행사 첫날,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농장주농협장 및 매력한우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이 갤러리아 고메이494 한남 행사장을 방문했다.

'영암매력한우'는 올해 1+이상 고급육출현율 전국 1위(2019년 기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등 3개상 석권하며 품질의 우수성을 날

리 알렸다.

영암매력한우는 우수 품질로 올해 롯데대수퍼에 이은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유통망 입점, 이번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론칭행사가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으로 품질로 으뜸임을 입증한 영암매력한우 품질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면서 "영암매력한우가 전국대표 한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영암=김희선 기자 khs161700@

순창군, SOC 위탁자 모집 가족센터·체육관 등 2곳

순창군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 좋은 가족센터와 동계면 종합체육관 등 2곳을 조성할 위탁개발자를 찾는다"고 23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신청서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참 좋은 가족센터는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양육부터 부부문제, 다문화 가족이 갖는 어려움 등 가족내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치는 순창읍 향도회관 뒤 편에 건립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교통편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순창=강성대 기자 ksd1008@

AIoT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경북도, 사업비 21억 확보

경북도의 'AIoT(사물지능) 기반 3종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은 각종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실증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경북도가 제안한 'AIoT 기반 3종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3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관리가 시급하고 지진도 잦아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북의 특수성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기획했다.

/경북=안동=김홍기 기자 gi2136@

부산 해양 자연사박물관 전시해설 온라인 서비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박물관을 찾기 힘든 관람객을 위해 23일부터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해설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비대면 시대 맞춤형 전시해설로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바다의 꽃, 산호(산호류 전시실) ▲아싸! 가오리(가오리류



온라인 전시해설의 한 장면. /부산시

전시실) 등 총 8편의 콘텐츠가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양시, 중마상설시장 주차장 정비완료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구)중마상설시장 주차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2000년에 중마전통시장이 새로 개장되면서 기존의 전통시장이 철거된 (구)중마상설시장 주차장은 6190㎡의 부지에 2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중마 중심 지역의 대형 주차장으로 거듭나 시민들

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천8백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 205면, 카스토퍼 설치 80개, 조경수 가지치기, 옹벽 도색 100㎡, 주차장 확장 60㎡의 공사 등 오는 27일까지 전체적인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양=김용국 기자 jiaacecom@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참여율 1% “홍보 부족에 투표과정 어려워”

시민숙의예산 투표 참여자 10만명
“사업수 많아 이해·선택 어렵다”
참여예산 홍보 인식, 부정적 55%

서울시가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의 시민투표 참여율이 1%로 낮아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의 시민투표 참여자 수는 2018년 11만9170명, 2019년 15만4975명, 올해 10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민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시행 중인 시민투표 참여자 수가 매우 저조해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홍보 부족과 투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3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참여예산(제안형)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부정적인 답변이 55.02%에 달했다.



2020 민관예산협의회 활동 모습(사업제안자 설명청취). /서울시

응답자들은 시민투표 시 어려운 점으로 ‘사업 수가 많아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50.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표 대상사업이 다 비슷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27.29%), ‘각 사업의 제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25.24%)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왔다. 시민숙의예산과 시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구성되며,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제안형은 시민이 직접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형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한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설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전자는 700억원, 후자는 5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유튜브나 대중교통 영상광고와 같이 홍보 효과가 높은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늘부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서울시 관내 10대 시설, 정밀 방역

서울시는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영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중

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저공해 미조차 5등급 차 운행제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차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

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김현정 기자

장기간 미사용물건, 지하철역에 맡긴다

서울교통공사 ‘또타스토리’ 선배 전용 앱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
답십리·이수·가락시장역 우선 운영

캠핑·스키용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사 짐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스토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나 유휴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로 대어해주는 것이다.

1인·4인 가구(20~39세) 주거 비율이 높아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3개 역사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4·7호선) ▲가락시장역(3·8호선)에서 우선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00%



답십리역 또타스토리. /서울교통공사

비대면으로 서울지하철 무인물품보관함 전용 앱인 ‘T-locker 또타라커’에서 창고 접수부터 결제, 출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앱에서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을 각각 선택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출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에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개인창고는 캐비닛형, 립형 두 가지다. 캐비닛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가 1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다. 가구 없는 원룸 이사짐, 취미용품, 수집품 보관에 적합하다. 립형(월 13만1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 35~45개 정도가 들어가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사짐을 둘 때 이용하면 된다.

김포시, 신보와 ‘매출채권보험 업무협약’

중소기업 연쇄도산 예방총력

김포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상 거래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으로 시작한 공적 보험으로 현재까지 24만 개 업체, 180조 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김포시가 지난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보험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는 보험료의 70%를,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10%를 우대해 지원한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경기도, FTA 농가 폐업에 478억 지원

현장조사 통해 94개 농가 선정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

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

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리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1월 24일 (화)
음력 :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0 ~ 8°C

연천	-5/7	동두천	-4/8
파주	-6/7	가평	-5/8
인천	1/7	양평	-3/8
수원	1/7	용인	1/7
평택	-3/8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현대車, 이네오스와 글로벌 수소생태계 조기구현 '한뎛' 06



Life

[라이프]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과 상품 공동 개발 L1



수출입은행의 '희망 씨앗' 사회 곳곳 행복의 싹 틔운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20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나누는 사랑, 더불어사는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은은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 공헌활동에 산정·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30대 계열 대기업에 금융을 지원 해서 받은 이자수의 일부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는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활동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탈북가정 등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등이다. 특히 수은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수혜자와 수혜기관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과 동행

수은은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 기준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훈련비용과 일터 운영비용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016년부터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후원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총10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수은은 희망씨앗 전파사업에 2억원, 희망일터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씨앗 전파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고용하거나 공정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12개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일터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 신구성원 20명의 일자리 급여와 인력 훈련비를 지원했다.

수은은 프로보노 봉사단을 운영해 재능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프로보노는 시민 또는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해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수은은 영세 사회적 기업에 긴급자금대출과 상해 공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개별 기업에 맞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배식봉사

자립기반 마련 돕는 사회공헌활동 취약계층 위한 고용·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다문화 어린이 위한 축구교실 열고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자금 지원도

개도국과 자매결연, 생활시설 개선 라오스·가나 등에 국산 방역물품 전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은은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등에게 밥과 반찬 등을 배식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문화·탈북민 가족 지원

수은은 고유업무 특성을 살려 신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다문화·탈북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은은 올해 전국 14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기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증한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총 90대다.

다문화 어린이를 위해 축구교실도 지원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외 등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탈북민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북 청소년과 탈북민 2세대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 학습부터 정서지원, 취업·진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수은은 주로 현장학습과 방과후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비용과 급식비 등 학교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다문화 탈북민들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문화 탈북민 가정이 보다 쉽게 정착



- 1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따스한채움터를 방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 2 수출입은행 희망씨앗 봉사단이 탈북민 어린이 경제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3 수출입은행 희망씨앗봉사단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광야홀리스센터를 방문해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 4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캄보디아에서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출입은행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DCF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이밖에도 수은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은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빈곤국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건·의료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북벵 마을과 공공기관 최초로 '개도국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물·화장실·보건실 설치 등 생활시설 개선은 물론 마을 내 중학교 건립 지원에 나선다.

최근 수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에 한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로 방역복과 검사장비 등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긴급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들 국가 모두 EDCF 중점협력국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